

2024 개정 표준보육과정(0~2세)

모든 영아를 위한

지원 자료



2024 개정 표준보육과정(0~2세)

모든 영아를 위한

지원 자료

목차



1

모든 영아 이해

- 1. 배우며 자라나는 모든 영아 08
- 2. 모든 영아의 놀이와 배움 14

2

모든 영아가 만들어 가는 보육과정: 놀이와 배움

- 1. 모든 영아의 놀이에서 배움 읽기 22
- 2. 모든 영아를 위한 교사 되어가기 36





3

모든 영아를 위한 보육과정 실행

1. 일상생활	54
2. 상호작용	64
3. 환경 구성 및 자료	76
4. 계획과 평가	88
5. 협력 지원	100

4

모든 영아를 위한 보육과정 지원사례

1. 좋아하는 놀이를 친구와 같이 해요	116
2. 영아가 편안한 방식으로 소통해요	120
3. 영아 가정의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해요	126
4. 영아를 지원하기 위해 가정과 연계해요	130



부록

도움 받을 수 있어요: Q&A와 정보

1. 이럴 땐 이렇게: 다양한 영아를 지원하는 방법	138
2. 교사의 고민 묻고 답하기	146
3. 지원·정책 서비스	154





성격

- 「모든 영아를 위한 지원자료」는 2024 개정 표준보육과정(0~2세) 해설서, 0~1세 실행자료, 2세 실행자료의 보편적 보육과정을 기반으로 하되, 다양성과 포용성의 관점에서 이주배경, 장애, 발달이 느린 영아의 특성과 요구를 반영하여 현장의 보육 실행력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둔다.
- 「모든 영아를 위한 지원자료」는 영아를 고유한 특성을 가진 유능하고 주체적 존재로 바라보며, 이들이 놀이와 일상생활 속에서 관계를 맺고 상호작용하는 가운데 얻게 되는 배움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구체적인 사례와 방법을 제시한다.
- 「모든 영아를 위한 지원자료」는 공정한 출발선 평등을 위해 사회의 다양성을 반영하고, 어린 학습자들이 서로 이해하고 공동체의 일원으로 인식함으로써 더 포용적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관점을 기초로 한다. 이는 동일한 내용과 기회를 제공하는 형식적 평등이 아니라, 개별 영아들의 다양한 요구와 배경에 맞추어 적절한 지원을 제공하는 실질적 평등의 개념을 기반으로 한 것이다.



구성

- 「모든 영아를 위한 지원자료」는 고시문의 내용을 현장에서 실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향으로 설계되었고, 고시문의 구성체계를 반영하여 총 4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 1장에서는 모든 영아를 개별적이고, 다양하며, 유능하고, 소통하는 존재로 이해하는 관점을 다룬다. 이는 모든 영아 지원하기의 중요한 핵심이며 출발점이다.
- 2장에서는 모든 영아가 만들어가는 보육과정으로 운영하기 위한 교사의 역할과 지원 방법을 제안한다.
- 3장에서는 모든 영아를 위한 보육과정의 실행을 다루며, 표준보육과정의 편성·운영 및 교수학습 측면에서 모든 영아의 배움과 성장을 지원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사례와 함께 제시한다. 관련한 고시문과 해설서의 내용은 표와 같다.
- 4장에서는 교사들이 현장에서 만나는 고민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지원 방안 등을 개별 영아 지원 사례를 중심으로 소개한다.

[관련 고시문과 해설서]

고시문

[편성·운영]

라. 성, 신체적 특성, 장애, 종교, 가족 및 문화적 배경 등에 따른 차별이 없도록 편성하여 운영한다.

[편성·운영]

마. 영아의 발달과 장애 정도에 따라 조정하여 운영한다.

[교수·학습]

사. 영아의 연령, 발달, 장애, 배경 등을 고려하여 개별 특성에 적합한 방식으로 배우도록 한다.

해설서

교사는 성별, 신체적 특징 및 장애 유무에 따라 영유아를 비교하고 평가하거나 제외하는 등의 불이익을 주지 말아야 한다. (중략) 또한 영유아들에게 다양한 가족 형태와 문화적 배경을 이해할 수 있는 경험을 제공하여 다양성을 존중하고 배려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p.32).

교사는 특별한 요구를 하는 영아도 차별하지 말고 또래와 더불어 생활하고 함께 놀이하도록 지원해야 한다. 교사는 모든 영유아가 보편적인 환경에 접근하고 참여하도록 (중략) 교사는 장애 영유아의 특성과 요구를 파악하여 개별화교육계획을 수립하고, 개별 장애 영유아의 교육적 요구에 적합하게 보육해야 한다. 장애 영아를 위해서는 개별화가족서비스계획을 수립하고 실시할 수 있다(p.33).

교사는 영아의 연령과 발달, 장애, 배경 등의 다양한 특성을 이해하고 개별 특성을 최대한 고려하여 배움을 지원해야 한다. (중략) 또한 영유아가 가정에서 경험하는 다양한 문화적 특성을 서로 인정하고 존중하며 가치 있게 여기도록 해 주어야 한다. 교사는 영유아의 특성에 적합하게 지원하도록 발달 특성이나 장애 정도, 문화적 배경을 우선적으로 파악해야 하며, 필요할 경우 관련 기관 또는 전문가와 협력할 수 있다(p.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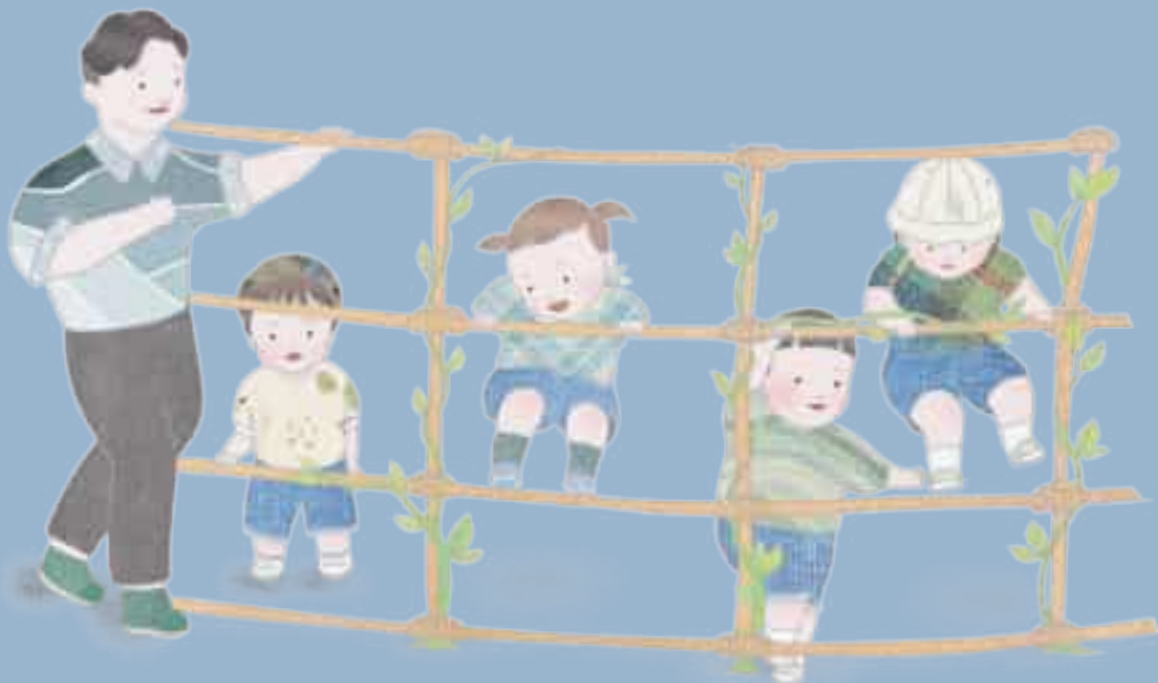
1

“ 모든 영아는 자신만의 속도와 방식으로
세상과 소통하며 유능한 존재로 성장한다 ”

모든 아이들은 고유한 잠재력을 가지고 태어나 저마다 다르게 배우고 성장하며,
그들이 속한 환경 속에서 공평한 경험의 기회를 가질 권리가 있다.
모든 아이들은 배우고자 하는 열망을 지니고 있고 세상을 탐험하는 데 즐거움을 느낀다.
따라서 성인들은 아이들과 함께하며, 모든 아이들이 자신의 노래를 부르면서
기쁨과 경이로움 속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모든 영아 이해

1. 배우며 자라나는 모든 영아
2. 모든 영아의 놀이와 배움



1

배우며 자라나는 모든 영아



우리 같이 망치놀이 하자
망치를 이렇게 돌려서 쥐고 똑딱똑딱

개별적 존재로서의 영아



까꿍놀이를 하는 두 명의 또래
그 놀이를 바라보는 상은이

함께 놀고 싶은 걸까?
자기만의 방식으로 놀이하는 걸까?

영아를 어떤 존재로 바라보느냐는 모든 영아 지원하기의 중요한 출발점이다. 영아는 자신이 흥미를 가진 대상을 주도적으로 탐색하고, 온몸과 감각을 사용해 자발적으로 세상을 배워나간다.

이주배경, 장애, 발달이 느린 영아도 마찬가지이다.

모든 영아는 기질, 발달 특성 및 속도, 문화적 배경 등이 다른 개별적 존재이다. 자신만의 방식으로 또래와 상호작용하면서, 자신의 고유성을 알아가고 다양한 정서를 경험한다. 개별적인 모든 영아의 놀이는 다채롭다.



다양한 존재로서의 영아

즐거운 감정을
다르게 표현하는 아이



숨는 게 좋은 아이
찾는 게 재미있는 아이

영아는 각기 다른 배경과 경험을 통해 고유한 정체성을 형성하며, 주변 세계를 이해한다. 영아의 경험은 문화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며, 부모로부터 그들의 문화적인 규범과 가치를 배운다. 이는 영아가 이후 세상과 관계를 맺는 방식을 결정짓는 기초가 된다.

다양한 문화에 대한 영아의 경험은 유능하고 자신감 있는 자아정체성을 형성하고 다양성에 대해 편안하게 공감하며 또래와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하는 데 도움이 된다. 놀이와 일상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다양성을 경험한 영아는 서로의 차이를 '다름'으로 이해하며 개방적인 태도를 지닌 아이로 성장한다.

유능한 존재로서의 영아

쓰러지지 않게 조심조심
더 높이 쌓아보자



의사 선생님이 귀를 볼 수 있게
몸을 좀 기울여볼까?

영아는 능동적으로 환경을 탐색하고, 주도적으로 문제를 해결한다. 주변 환경을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바라보며, 각자의 방식으로 세상을 탐색하고, 이 과정에서 사물의 특성, 원인과 결과 등을 이해하게 된다. 또한 표정, 몸짓, 울음 등을 통해 자신의 욕구와 감정을 자발적으로 표현한다.

영아의 유능함은 능력의 유능함이 아닌, 자신의 방식으로 배우고 성장한다는 의미에서의 유능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교사는 이주배경, 장애, 발달이 느린 영아가 환경과 상호작용하는 다양한 방식을 관찰하며, 각자의 유능함을 바탕으로 고유의 가치를 발달시킬 수 있는 경험을 제공한다.

소통하는 존재로서의 영아

(미소를 지으며 손가락으로 천천히 왕관을 가리킨다.)



은우야, 선물이야.
내가 만든 왕관이야.

마음에 든다구?

영아는 말 외에도 울음, 표정, 행동과 같은 다양한 비언어적 방법으로 세상과 소통한다. 모든 영아는 사회적 존재이며 소통하려는 마음과 능력을 지니고 있다. 비언어적·언어적으로 자신의 감정과 요구를 표현하고 있으며,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기 위해 마음을 열 준비가 되어 있다.

이주배경, 장애, 발달이 느린 영아는 보이지 않는 소통의 장벽을 경험할 수 있다. 따라서 교사는 이러한 장벽을 최소화하기 위해 영아의 신호를 민감하게 읽고, 개별적인 소통 방식을 존중하며, 영아가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2

모든 영아의 놀이와 배움



내 목소리 들려?

응, 더 잘 들려

모든 영아의 다양한 놀이와 배움 수용하기

영아의 놀이와 배움의 모습은 모든 영아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 다만 모든 영아의 개별적 특성과 관심에 따라 조금 더 다양하게 나타날 뿐이다.

영아들은 똑같은 블록으로도 다르게 놀이한다. 영아의 흥미와 관심이 다르고, 가정과 문화적 배경에 따라 경험이 다르기 때문이다. 이런 개별적 특징에는 장애, 발달적 어려움, 문화적 배경 등도 포함된다.



와~ 잘 보이네



여기에 끼우면 되겠다



조심조심 높이 쌓아 보자

다양성을 반영한 놀이는 영아가 또래와의 상호작용에서 문화적 다양성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기회를 제공하며, 자연스럽게 사회적 기술을 기르는 데 기여한다.

이주배경 영아는 가정의 문화가 반영된 놀이를 통해 자신의 문화가 기관에서도 수용되는 경험을 하며, 자신의 정체성을 긍정적으로 형성한다. 장애 영아는 영아의 개별적 특성을 고려하여 접근성을 높인 다양한 놀이 환경에서 놀이 참여 기회를 가지며, 긍정적 자아상을 형성하고 또래와의 상호작용을 촉진한다.

다양한 영아의 놀이와 배움의 방식과 요구는 자세히 지켜보아야 알 수 있으며, 영아 개인의 발달 특성과 요구에 적합한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교사의 세심한 지원이 필요하다. 또한 교사는 모든 영아의 놀이와 배움을 다양성과 포용성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영아의 요구에 귀를 기울인다.



채소가 싫은 상우에게서 시작한 놀이



손가락으로 콧 찌러도 보고, 발로도 느껴보자!

장애나 발달이 느린 영아는 특정한 감각을 좋아하기도 하고 싫어하기도 한다. 상우는 유독 채소의 식감을 싫어하는 영아이다. 교사는 상우가 채소에 대한 거부감을 줄이고 흥미를 가지도록 채소를 다양한 놀이자료로 준비해 주었다. 영아들은 채소를 손가락으로 찢어 탐색해 보고, 미역을 발로 밟아도 보며, 채소 단면으로 도장찍기를 하다 두드리는 소리에 재미를 느끼기도 하였다. 이 과정에서 상우도 또래의 놀이를 지켜보며, 늘 손에 쥐고 다니던 놀잇감을 내려놓고 채소를 만져 보고 탐색해 보기 시작하였다. 채소를 싫어하는 상우를 지원하기 위해 시작되었던 놀이지만 영아들이 채소로부터 다양한 경험을 하는 계기가 되었다.



채소 도장을 찍으며
동요에 맞추어 책상 위를 두들겨 보자!



허골로 맛보면 어떨까?



모든 영아의 세심한 표현에 귀 기울이기

보육과정을 만들어가는 영아는 수동적인 관찰자가 아니라 적극적인 참여자이다. 영아와 신뢰를 쌓기 위해서는 각 영아의 신호를 읽고, 개별적인 요구에 맞춰 반응하는 관계 형성이 중요하다. 놀이와 일상 생활에서 영아의 개별적이고 다양한 요구가 반영되고 수용될 때 영아는 자신의 유능성을 발견하며 성장한다.

개별 신체 리듬을 반영한 일과 운영은 영아가 자신에게 맞는 방식으로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예를 들어, 시각적 또는 청각적 지원을 활용하여 이야기나 놀이를 경험하게 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발달을 촉진하고 사회적 기술을 키울 수 있다. 이주배경, 장애, 발달이 느린 영아에게도 자신의 발달 특성에 적합한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자아존중감을 높이고, 또래와의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증진할 수 있다. 이주배경 영아에게는 영아에게 친숙한 문화와 모어*를 활용해 지원한다.



동그란 구멍을 만들었네
색깔도 칠하고 싶어?



선생님이랑 '짠'하고 싶구나

* 모어: 태어나서 가장 먼저 자연스럽게 습득하는 언어를 의미한다. 이와 유사한 개념인 모국어는 개인이 속한 국가나 민족의 언어를 뜻한다.

교사가 귀 기울여서 듣는 모습을 온몸으로 보여주면 영아들도 소통하려는 동기가 커지고 놀이하는 과정에서 더 여러 가지 시도를 하게 된다. 이것은 의사소통 발달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따라서 교사는 영아의 모든 행동을 의사소통 시도로 바라보며 개별 영아의 요구에 반응적으로 지원한다.



블록이 무너져서 속상했구나



냠냠 딸기 맛있다



여보세요? 가까 사서 금방 갈게요

2



모든 영아가 만들어 가는 보육과정: 놀이와 배움

1. 모든 영아의 놀이에서 배움 읽기
2. 모든 영아를 위한 교사 되어가기



1

모든 영아의 놀이에서 배움 읽기



교사는 모든 영아가 자신만의 보육과정을 만들어 가도록
영아의 놀이에서 다양한 배움을 읽을 수 있다.

이주배경, 장애, 발달이 느린 영아에 대한 배움 읽기는 개별 영아가 발달과 성장을 위해 어떤 경험을 하고 있는지 살펴보고, 지원의 필요성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런 측면에서 배움 읽기는 영아의 배움을 지원하고 나아가 영아의 발달과 성장을 돕는 데 유용한 정보를 준다.



개별 영아에 대한 배움 읽기는 영아의 경험을 점검하고 필요한 지원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모든 영아는 스스로 배움을 만들어 가는 유능한 존재이다. 그러나 장애, 느린 발달, 또는 언어 및 문화적 차이는 종종 배움의 시작 또는 확장을 방해하며 궁극적으로 영아의 발달을 저해하기도 한다. 따라서 교사는 영아의 시선을 따라가고 귀 기울이면서 다양한 배움의 순간을 포착하여 영아가 충분한 배움을 경험하도록 지원한다. 이런 측면에서 특별한 요구를 가진 영아에 대한 배움 읽기는 배움 지원이 시작되는 순간이기도 하다. 이러한 배움 읽기는 다음의 사례들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



특별한 요구를 가진 영아에 대한 배움 읽기는 배움 지원이 시작되는 순간이기도 하다.

영아의 흥미와 관심에서 시작된 배움 읽기

배움은 영아가 흥미를 갖고 대상을 탐색하면서 시작된다. 영아의 흥미와 관심은 짧은 순간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교사가 영아의 시선을 따라가면서 흥미와 관심을 포착하는 순간은 배움 읽기와 지원의 중요한 시작점이 될 수 있다. 이때 교사는 영아가 흥미를 느끼거나 관심을 보이는 놀이나 대상을 직접 탐색하고 경험하도록 지원하여 영아가 자신만의 배움을 만들어 가도록 돕는다.

영아가 무엇에 흥미와 관심을 보이는지 알아차리는 순간 배움 읽기가 시작된다.

소망이는 또래에 비해 언어 발달이 느린 1세 영아이다. 교사는 평소 소망이의 언어 발달을 위해 의사소통 의도를 읽어주고 의도에 맞춰 소통하려고 노력한다. 소망이는 바깥놀이를 좋아하며 흔들목마 타기를 즐긴다.

놀이터에서 흔들목마를 타던 소망이가 갑자기 목마에서 내리려고 한다.

“소망이 내리고 싶구나. ‘내리고 싶어요~.’”

선생님은 소망이의 의도를 읽어주면서 목마에서 내리도록 한다.



저게 뭐지?



내려가서 볼래

소망이의 시선을 따라가 보니 바닥에 꽃이 하나 떨어져 있다.
꽃을 주워서 보여주고 소망이의 손목을 가리키며 “꽃팔찌 만들어 줄까?”하고 물어보니 손을 내민다.



와, 신기하다! 손목도 간질간질 이상해



선생님, 이것 좀 보세요

소망이는 선생님이 손목에 매어준 꽃팔찌가 신기한 듯, 한참 동안 팔을 들고 다니며 바라본다.

그러다 우연히 손그림자를 발견한 소망이.
손을 움직이니 그림자도 움직인다.



이건 뭐지?

내 손이랑 똑같은 모양이네~ 움직이기도 해

사례로 살펴보는 배움 읽기와 지원

소망이의 배움

영아의 행동에 담긴 의도를 읽어 주었어요

교사는 흔들목마에서 내리려는 소망이의 의도를 읽고, 내릴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그 결과 소망이가 무엇에 관심을 가지는지 알게 되었다.

교사는 소망이의 의도를 나타내는 말(“내리고 싶어요”)을 들려주었다. 소망이는 자신의 의도를 담은 선생님의 말소리에 점점 주의를 기울이게 될 것이다.

영아의 시선을 따라가며 흥미와 관심을 발견했어요

교사는 소망이의 시선을 따라가며 바닥에 떨어진 꽃에 관심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 꽃으로 꽃팔찌를 만들어 주었고, 이것이 새로운 경험과 놀이로 이어지게 되었다.

표준보육과정 5개 영역으로 배움을 읽고 기록했어요

소망이의 배움 읽기

흔들목마를 타던 소망이가 손잡이를 꼭 잡은 채 다리를 들어올리고 엉덩이를 움직인다(**신체운동·건강 - 대소근육을 조절한다**). 내려오고 싶은가 보다. 소망이가 목마에서 내려오는 것을 도와주고 소망이의 시선을 따라가 보니 호기심을 느끼는지 바닥의 꽃을 바라보고 있다(**자연탐구 - 주변 환경과 자연에 대해 호기심을 가진다**). 소망이가 꽃을 보고만 있기에 꽃팔찌를 만들어 손목에 매어준다. 소망이가 팔을 들어 꽃팔찌를 한참 바라보더니 ‘이것 보세요.’라고 하듯 선생님을 바라본다. “소망이 꽃팔찌 했네.”라고 말하니 싱긋 웃는다(**의사소통 - 표정, 몸짓, 말소리로 의사를 표현한다**). 한참을 팔을 들고 다니더니 이번에는 바닥에 비친 손그림자를 본다. 손 모양의 그림자를 바라보고 손을 이리저리 움직여보기도 하면서 그림자와 자신의 손을 탐색해 본다(**자연탐구 - 공간과 모양을 탐색한다**).

또래와의 상호작용에서 시작된 배움 읽기

영아가 만들어 가는 배움은 때로는 또래와 함께하는 상호작용에서 시작된다. 또래는 놀이의 동기과 즐거움을 주고 자연스러운 비계설정을 해 줄 수 있다. 특히, 특별한 요구를 가진 영아에게 또래와의 놀이와 상호작용은 배움이 시작되는 중요한 순간이 된다. 따라서 교사는 또래와 상호작용하는 영아의 놀이를 따라가면서 의미 있는 배움 읽기를 할 수 있다.

특별한 요구를 가진 영아에게 또래와 상호작용이 시작되는 순간은 곧 배움이 시작되는 순간이기도 하다.

2세인 준호는 중국 국적의 이주배경 영아이다. 준호는 언어적 차이와 낮은 환경 때문인지 교실에 우두커니 앉아 있는 시간이 많고 선생님이 놀이를 제안해도 흔쾌히 반응하지 않는다. 그리고 친구들이 노는 자리를 피해 조용한 공간에서 놀잇감을 이리저리 살펴보고 놀곤 한다.



재하가 부르자
그림책을 보다가 재하를 바라본다

재하가 준호를 계속해서 부르자
재하 쪽으로 몸을 기울이며 웃는다

그러던 어느 날 그림책을 보던 준호에게 재하가 재미있는 표정이 있는 그림책을 들고 다가간다. 그리고 “준호야, 나 봐!”하고 말을 건넨다.

준호가 쳐다보기만 하고 아무 말도 하지 않자 “준호야, 준호야, 준호야” 하고 이름을 반복해서 부른다. 준호는 싫지 않은 듯 살짝 웃는다.



재하가 책에 나온 표정을 따라 해보라고 하자
준호가 재하의 말을 따라 한다

재하가 다시 혀를 내밀며 책에 나온 표정을
보여주자 준호도 혀를 내밀며 따라 해본다

재하가 장난스럽게 혀를 내밀는 그림을 보며 “이렇게 해”라고 말하며 혀를 내밀자 준호는 “이렇게 해”라며 재하의 말을 따라 한다.

재하가 “아니, 이렇게~”라고 하자, 준호는 부끄러운 듯 웃으며 재하를 흉내 내며 혀를 살짝 내밀어 보인다.

사례로 살펴보는 배움 읽기와 지원

준호의 배움

또래와 상호작용을 시작하는 모습을 발견했어요

준호 곁에서 책을 보던 재하가 말을 걸면서 상호작용이 시작되었다. 재하가 말을 걸자 준호가 재하의 말과 행동을 따라 하며 놀이가 시작되었다.

표준보육과정 5개 영역으로 배움을 읽고 기록했어요

준호의 배움 읽기

준호가 책을 보다가 재하가 말을 걸자 고개를 돌려 쳐다보며 웃음으로 호감을 표현한다(의사소통 - 표정, 몸짓, 말에 주의를 기울여 듣는다). 그러자 재하가 “이렇게 해 봐.”하며 그림책의 장면을 따라 해보자고 제안한다. 처음에는 재하의 의도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지만 재하의 말을 따라 하면서 친구의 행동에 관심을 보인다(사회관계 - 다른 사람의 감정과 행동에 관심을 가진다). 재하가 “아니, 이렇게~”하며 다시 혀를 내밀어 보이자 마주 보며 혀를 내밀어 보였고 놀이가 시작된다(사회관계 - 또래와 함께 놀이한다).

영아의 배움 특성을 이해했어요

재하와 놀이하는 모습을 본 교사는 준호가 여러 친구와 함께 노는 상황보다 일대일로 노는 상황을 더 편안하게 느낀다고 생각하였다. 그래서 책에 관심이 생긴 준호가 친구와 조용히 상호작용을 할 수 있도록 그림책을 다양하게 비치하였다. 또,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줄 때 그림책 따라 하기 놀이를 함께 하면서 그림과 함께 다양한 한국어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교사의 직접적인 지원에서 시작된 배움 읽기

장애가 있거나 발달이 느린 경우, 영아가 만들어 가는 배움은 때로 교사의 지원으로 시작되기도 한다. 이때 교사는 영아가 놀이나 배움을 시작하도록 돕지만, 놀이가 시작된 후에는 스스로 배움을 만들어 가도록 가능한 한 독립성을 보장한다. 이러한 지원을 위해 영아가 가진 어려움보다 강점에 초점을 두어 관찰하고 영아가 스스로 할 수 있는 범위를 넓혀 가도록 한다. 영아가 흥미를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영아의 관심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도 중요하다.

장애 또는 느린 발달 등으로 놀이에 참여하기 어려운 경우, 교사가 놀이와 배움이 시작되도록 영아의 강점과 흥미, 관심에 따라 조금 더 직접적으로 지원해 줄 수도 있다.

은우는 뇌병변장애를 갖고 있는 1세 영아이다. 스스로 팔이나 손을 움직이기 힘들고 몸을 가누기 어려워서 주로 피더시트(Feeder Seat)*에 앉아서 생활한다. 교사는 은우가 다양하고 의미 있는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초점을 두어 지원하고 있다.



책상에 종이를 놓고 그림 그리는 것이 어려운 은우를 위해 교사는 울퉁불퉁한 느낌을 느낄 수 있는 골판지를 세워서 준다. 또, 잡기 쉽고 종이에 대면 바로 색깔이 나타나는 두툼한 붓을 크레파스 대신 제공한다. 은우는 교사가 팔을 잡아주자 손에 힘을 주어 붓을 잡고 붓의 움직임을 응시하며 자신이 그린 그림을 바라본다.

영차~ 손에 힘을 주니 울퉁불퉁 종이에 그림이 그려지네

* 피더시트(Feeder Seat): : 장애 영유아가 앉는 자세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의자이다.



은우에게 또래들이 자발적으로 다가가서 함께 놀도록 은우와 함께하는 즐거운 놀이 경험을 지원한다.

선생님, 은우가 재미있나 봐요
그림책을 쳐다봤어요



은우랑 같이 그림을 그려보자
은우도 재미있나 봐~ 그림을 보네



여기는 아이스크림 가게입니다
무슨 아이스크림 드릴까요?

교사는 영아들이 은우를 ‘도와주어야 하는 친구’가 아니라 ‘함께 노는 친구’로 인식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교사는 은우 곁에서 영아들과 함께 놀면서, 표정이나 행동을 통해 은우의 생각이나 기분을 읽어주고 은우와 함께 노는 방법을 자연스럽게 보여준다.

사례로 살펴보는 배움 읽기와 지원

은우의 배움

배움이 시작되도록 영아가 할 수 있는 활동을 지원했어요

은우는 스스로 놀이를 선택하거나 시작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교사는 은우가 할 수 있는 놀이를 선정해서 지원했다. 은우가 피더시트에 앉아서도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종이를 세워주었고 크레파스 대신 붓을 사용하여 손에 힘을 덜 주어도 그림을 그릴 수 있게 하였다. 또, 골판지를 이용해서 울퉁불퉁한 느낌을 느낄 수 있게 하고 붓을 스스로 잡을 수 있도록 붓의 손잡이를 두툼하게 감아주었다.

표준보육과정 5개 영역으로 배움을 읽고 기록했어요

은우의 배움 읽기

은우는 손을 잡아주자 붓을 잡은 손에 힘을 주며 붓의 움직임을 응시해 집중한다(신체운동·건강 - 대소근육을 조절한다). 그러면서 울퉁불퉁한 골판지의 느낌을 느끼기도 하고(신체운동·건강 - 다양한 감각을 경험한다) 붓이 움직이는 대로 모양과 색깔이 나타나는 것을 바라보기도 한다(예술경험 - 다양한 미술 재료를 경험한다). 은우는 힘을 주어 붓을 잡으면서 스스로 무언가를 해내는 경험도 한다.

또래 상호작용을 통해 배움을 지원했어요

교사는 또래가 자연스럽게 은우를 놀이 친구로 인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또래 상호작용이 나타나도록 지원하였다. 이를 위해 교사가 함께 즐거운 놀이를 하기도 하고, 은우의 시선, 표정이나 소리로 은우의 기분이나 관심을 추측하는 것을 보여주었다(예: “은우가 기분이 좋구나. 웃고 있네.”, “은우가 민지를 보고 있네. 민지가 뭐 하는지 궁금한가 봐.” 등). 영아들은 선생님이 은우를 대하는 방식을 그대로 따라 했다. 그리고 이따금씩 놀잇감을 들고 와서 “은우야, 나랑 이거 하자.”라며 함께 놀기도 하고 “은우가 재미있나 봐요. 그림책을 봐요.”하고 은우의 기분을 읽어주기도 하였다.

영아의 성장을 따라가는 배움 읽기

때로 교사는 긴 호흡으로 영아의 성장을 따라갈 필요도 있다. 이때는 매일의 기록과 배움 읽기를 모으고 연결하여 짧게는 한두 달, 길게는 한 학기에서 일 년 단위로 영아의 성장을 짚어간다. 이런 과정은 배움을 지원하는 교사의 성찰과 영아를 위한 지원의 효과를 점검하는 역할을 하며, 영아의 성장한 모습을 발견하고 기쁨을 누리는 정서적 지지의 역할도 한다.

매일의 배움 읽기 기록을 모아서 영아의 성장과 변화를 파악할 수 있으며 이러한 자료를 가족과 공유하는 것도 의미 있다.

2세 리아는 이주배경 영아로 발달 지연을 나타내는 유전성 희귀질환을 가졌다. 리아가 처음 등원했을 때는 불편한 상황이 생기면 울음으로 표현하였고, 놀이 시간에는 혼자 앉아 있곤 했다. 그러나 지속적인 지원으로 학기 말에는 여러 가지 놀이에 즐겁게 참여하게 되었고 친구들과의 상호작용도 더 증가하였다.

교사는 리아의 배움을 읽기 위해 평소 일상과 놀이를 사진과 영상으로 기록하였다. 그리고 학기 말에 이러한 자료를 활용하여 성장 영상을 만들고 리아의 변화에 대한 정보를 가족과 공유하였다.

사례로 살펴보는 배움 읽기와 지원

리아의 배움

리아의 배움을 읽기 위해 놀이와 일상을 사진으로 기록했어요

교사는 평소 놀이와 일상을 사진으로 기록하여 리아의 배움을 읽어보았다. 리아에 대한 배움 읽기는 리아의 특성이나 흥미, 관심을 알아보는 정보가 되기도 했지만 정기적으로 사진이나 배움 읽기 기록을 정리하면서 리아의 변화를 알아보는 자료로도 활용할 수 있었다.

배움 읽기 기록을 연결하여 리아의 변화를 살펴보았어요

매달 대표적인 배움 읽기 기록과 놀이 장면을 찍은 사진을 선정하여 일 년간의 변화를 살펴보는 짧은 영상을 만들었다. 영상물은 리아의 가족과 공유하기에 편리하였고 리아의 변화와 놀이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유용한 자료가 되었다.

리아의 배움 따라가기



친구 옆에서 좋아하는
점토놀이를 해봤어
재미있었어



자정자정
인형놀이도 좋아



처음에는 모든 게 낯설고
어려워서 힘들었어



모래가 묻는 건 조금 불편하지만
모래삽이 있으면
모래놀이도 즐거워



책 보는 것도
재미있고~



그런데 선생님, 친구들과
함께하는 바깥놀이는
재미있더라고~



선생님이 준비해 준
변기 놀이도 재미있어



나는 친구들과 함께하는
울동이 힘들었어



나는 나만의 속도로 배우고 있어
나는 앞으로도 쭉쭉 자라날 거야



혼자서 할 수 있는 것이
더 많아졌어



이제는 친구들 옆에 앉아서
지켜볼 수도 있어



그리고 친구와 함께여서
행복해



친구와 나란히 앉아
술가락과 포크로 남남!
혼자서도 먹을 수 있어



그리고 울동도
조금씩 재미있어지고 있어



이제는 친구랑 노는 게
즐거워

2

모든 영아를 위한 교사 되어가기



모든 영아를 위한 교사는 다양한 영아들이
'함께 배우는 학습자'가 될 수 있도록 반응적으로 지원한다.

반응적으로 지원하는 교사 되어가기

**‘모든 영아를 위한 교사’는
다양한 아이들을 만나는 과정에서 ‘되어가는’ 것이다.
우리가 만나는 다양한 아이들은 교사로서 나를 성장시키는 동력이다.**



표준보육과정은 모든 영아가 함께 만들어 가는 보육과정이다. 따라서 교사는 다양한 영아들이 자신의 배움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반응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모든 영아를 위한 표준보육과정에서 ‘반응적 지원’이란 영아 반의 보육과정을 실행할 때 개별 영아의 특성이나 요구, 언어 및 문화적 배경 등을 민감하게 읽어내고 이에 따라 배움을 지원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모든 영아를 개별적이고 다양한 존재로 바라보는 관점과 영아의 요구를 읽고 민감하게 반응하는 교사의 역량이 중요하다. 이런 측면에서 다양한 영아를 만나는 것은 모든 영아를 위한 교사가 되어가는 데 성장 동력이 되기도 한다.

반응적 지원은 영아반의 보육과정을 운영하면서 개별 영아의 특성이나 요구, 언어 및 문화적 배경 등을 민감하게 읽고 이에 따라 반응적으로 배움을 지원하는 것이다.

귀 기울이기

개별 영아를 위한 귀 기울이기는 영아의 관점에서 공감하며 관찰하고 소통하는 교사의 모든 행위를 의미한다. 반응적 지원을 위해 개별 영아에게 귀 기울이는 교사는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갖는다.

영아의 행동을 의사소통 시도로 해석해요

반응적 지원을 위해 개별 영아에게 귀 기울이는 교사는 도전행동*을 포함한 영아의 모든 행동을 의사소통 시도로 해석한다. 따라서 영아의 행동에 담긴 요구나 의미에 관심을 가지고 이에 반응하는 방식으로 지원한다.

예를 들어, 영아의 울음을 ‘무서워요.’, ‘불편해요.’, ‘원하는 것을 할 수 없어서 속상해요.’ 등과 같이 해석한다면 그에 따라 영아가 무서워하거나 불편해지는 요소를 제거하거나 영아가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줄 수 있다. 만약 영아의 요구를 즉각적으로 해결해 줄 수 없다면 감정을 읽어주고 공감해 주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다.



영아가 가진 발달 및 장애 특성, 또는 언어 및 문화적 특성을 파악해요

영아가 가진 발달 및 장애 특성, 또는 언어 및 문화적 특성을 아는 것은 개별 영아의 요구에 귀 기울일 때 유용한 정보가 된다. 예를 들어, 특정 음식을 먹지 않을 때 단순히 맛이 없거나 익숙하지 않은 음식이라서 거부할 수도 있지만, 특정한 맛이나 질감에 대한 감각적 예민함 때문에 먹기 힘든 것일 수도 있다.

이런 경우 영아는 음식을 거부하는 행동을 통해 ‘먹기 힘들어요.’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것이므로 조금 더 천천히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또, 문화적 차이로 식사 환경이나 음식이 익숙하지 않아서 거부하는 것이라면 영아가 조금 더 편안하게 받아들일도록 영아에게 익숙한 음식이나 식사 도구, 환경 등을 제공할 수 있다.



* 도전행동: 문제행동을 ‘지원을 통해 변화 가능한 행동’으로 바라보는 보다 긍정적인 관점의 용어이다.

다양한 방법으로 소통하면서 의사소통의 성공 경험을 제공해요

반응적인 지원을 하는 교사는 영아의 의사소통 신호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영아가 다양한 방법으로 소통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영아는 성공적인 소통 경험을 통해 언어를 학습한다. 따라서 이주배경의 영아라면 가정에서 사용하는 언어나 영아에게 익숙한 말을 활용하여 의사소통을 조금 더 편안하게 느끼도록 지원해야 한다.

또, 언어 발달이 느린 영아라면 말 이외에도 발성, 몸짓이나 그림, 사진 등 다양한 의사소통 방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성공적인 소통의 경험을 제공해야 한다. 이를 위해 먼저 영아의 의도나 필요에 귀 기울이는 것이 중요하며, 영아가 자신의 의도록 표현할 수 있도록 적절한 방법을 찾아 일관성 있게 시범을 보여주는 것도 필요하다.



영아에게 믿을 수 있는 따뜻한 존재가 되어주세요

영아가 교사를 믿을 수 있는 따뜻한 존재로 인식하는 것은 반응적 지원에서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하다. 영아에게 귀 기울이면서 반응적으로 지원하는 교사는 그 자체로 믿을 수 있는 따뜻한 존재이다.

이와 함께 영아의 손을 잡거나 안아주는 친밀한 신체적 접촉, 교사와 함께하는 즐거운 놀이나 재미있는 상호작용, 영아의 감정을 읽고 공감해주는 상호작용 등은 교사와 영아 간의 관계 형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 몽골에서 이주한 테무렐이 자주 짜증을 내고 울어서 고민하던 교사는 부모와 상담하면서 몽골에 비해 우리나라가 덥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 후 테무렐이 짜증을 낼 때 겹옷을 벗게 하거나 선풍기를 틀어주었더니 우는 행동이 줄어들었다.
- 말로 소통하기 어려운 상우가 이해하기 쉽도록 상우에게 말할 때 몸짓과 그림을 함께 사용하였다.
- 등원하는 모든 영아를 따뜻하게 안으며 환영해주었고 베트남어를 쓰는 링링에게는 베트남어로 인사하며 안아주었다.

배움 읽기

교사는 개별 영아에 대한 배움을 읽을 때 지원이 필요한 부분과 영아의 강점, 흥미, 관심 등을 함께 파악한다. 반응적 지원을 하는 교사는 배움 읽기를 다음과 같이 실행할 수 있다.

표준보육과정 5개 영역에 대한 배움 읽기로 지원의 필요성을 파악해요

표준보육과정 5개 영역은 0~2세 영아가 경험해야 할 영역별 목표와 내용을 제시한 것이다. 교사는 이러한 5개 영역에 대한 배움 읽기를 통해 영아가 연령에 맞게 적절한 경험을 하고 있는지 살펴보고 어떤 지원이 필요한지 결정한다.



발달영역에 대한 배움 읽기로 영아의 현행 수준을 파악해요

특수교사가 지원하는 장애 영아의 경우, 개별화가족 지원계획*을 통해 영아와 가족을 지원한다. 개별화가족 지원계획은 발달영역에 따른 목표와 가족에 대한 지원계획을 담은 문서로 특수교육 실행의 중요한 도구가 된다.

따라서 장애 영아의 배움 읽기 과정에서 대소근육운동, 의사소통, 사회-정서, 인지, 적응행동의 5개 발달 영역에 따른 관찰 내용을 추가하거나 보완함으로써 개별화가족지원계획 수립을 위한 정보를 수집하거나 계획 실행 정도를 점검할 수 있다.



* 개별화가족지원계획: 장애 영아의 요구에 따른 목표와 가족의 요구에 따른 지원계획 등을 포함한 문서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서는 개별화교육계획을 작성하도록 되어 있으나 영아는 개별화가족지원계획을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배움 임기에서 영아의 강점과 흥미, 관심을 파악해요

반응적인 지원을 하는 교사는 모든 영아를 유능한 존재로 인식하며 영아가 할 수 있는 것을 찾아낸다. 또, 영아가 자신의 방식으로 배움을 만들어 가도록 지원하기 위해 영아의 흥미와 관심을 적극적으로 알아낸다.

영아는 다양한 재료(예: 종이, 점토, 흙, 나뭇잎 등)나 물건(예: 컵, 냄비 뚜껑, 상자 등)에 관심을 가지며 이러한 것들은 좋은 놀잇감이 된다. 특히, 관심의 범위가 제한적이거나 자폐적 특성을 보이는 영아는 빛이나 소리, 촉감, 냄새 등 감각자극에 관심을 보이기도 한다. 예를 들어, 책을 좋아하는 영아 중에는 책의 이야기나 그림을



보며 즐기는 영아도 있지만, 책장을 넘기는 느낌이나 책 표면의 감촉을 즐기는 영아도 있다. 교사는 이렇게 영아가 흥미나 관심을 보이는 것이 다양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세심하게 관찰하여 놀이 지원에 활용할 수 있다. 이렇게 영아의 강점과 흥미, 관심을 파악하여 활용하는 사례는 이 책의 3장과 4장에 소개되어 있다.

- 특수교육대상자인 은우의 놀이를 표준보육과정 5개 영역과 발달영역에 따른 배움으로 기록하고 어떤 지원이 필요한지 공동 담임교사와 함께 의논하였다.
- 준서는 높은 곳에 올라가서 뛰어내리거나 나무 블록 등을 팡팡 내려치며 논다. 교사는 준서가 뛰어내리는 느낌과 물건을 치는 소리에 흥미를 느낀다고 생각하고 트램펄린과 다양한 타악기를 교실에 비치하여 준서가 안전하게 놀도록 지원하였다.

배움 지원하기

모든 영아는 자신의 흥미와 관심에 따라 놀이에 참여하고 그 과정에서 스스로 배움을 만들어 간다. 반응적 지원을 하는 교사는 특히 개별 영아의 흥미와 관심에 따라 배움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한다. 이러한 배움 지원은 다음과 같이 실행할 수 있다.

영아의 즐거운 놀이를 지원해요

특별한 요구를 가진 영아에 대해서도 0~1세 및 2세 실행자료에서 제시된 배움 읽기는 동등하게 적용된다. 특히, 표준보육과정 5개 영역은 0~2세 영아가 경험해야 할 영역별 목표와 내용을 제시한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5개 영역에 대한 배움 읽기를 통해 영아가 연령에 적절한 경험을 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어떤 지원이 필요한지 결정할 수 있다.



또래와 함께하는 즐거운 놀이를 지원해요

또래와의 상호작용과 놀이는 의사소통 및 사회성 발달, 문제해결력 등 다양한 배움을 경험할 수 있는 최적의 맥락을 제공한다. 특히, 또래는 그 자체로 훌륭한 놀이의 즐거움이자 동기가 되며 자연스럽게 비계설정의 역할도 수행한다. 따라서 또래와의 즐거운 상호작용을 지원하는 것 또한 중요한 지원 방향으로 고려해야 한다.



영아의 사회문화적 맥락을 이해하고 배움 지원해요

교사는 영아의 사회문화적 맥락을 이해하고 배움을 지원한다. 영아가 조금 더 편안한 방식으로 배움을 경험할 수 있도록 영아의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영아의 사회문화적 맥락을 고려하는 교사는 영아에게 익숙한 방식으로 일상생활이나 놀이의 요소를 수정하기도 하고 영아의 가정에서 사용하는 언어를 활용하여 의사소통을 풍부하게 만들기도 한다. 이러한 배움 지원의 구체적 전략과 사례는 이 책의 3장과 4장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개별 영아를 위해 협력적으로 지원해요

개별 영아에게 반응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구성원들의 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예를 들어, 영아반의 공동 담임교사나 기본반과 연장반 교사 간의 협력은 개별 영아의 요구에 더 반응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돕는다. 특별한 요구를 가진 영아의 경우 교사 개인의 판단에 의존하기보다, 기관의 교사들이 함께 의견을 나누는 정기적·비정기적 모임을 통해 더 적절한 지원 방안을 찾아볼 수 있다. 아울러, 교사와 가족 그리고 지역사회와의 협력 또한 반응적 지원을 계획하고 실행하는 데 필요하다. 이러한 협력의 구체적인 방법과 사례는 이 책의 3장 5절에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다.



- 특별한 요구를 가진 영아들에 대한 고민을 함께 나누고 지원 방법을 찾기 위해 전체 교사들이 주기적으로 모여 사례나눔 회의를 하였다.
- 몽골에서 이주해 온 체척의 문화적 배경을 이해하고, 좋아하는 놀이나 음식 등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번역기를 활용하여 부모 상담을 실시하였다.

개별 영아의 놀이 참여 지원하기

모든 영아는 움직임과 탐색을 통해
직접 경험하며 보육과정을 만들어간다.



모든 영아는 표준보육과정의 5개 영역을 직접 경험하며 보육과정을 만들어 간다. 이때 영아의 신체와 이를 통한 움직임은 세상을 향한 자유로운 탐색의 기반이 된다. 그러나 언어 및 문화적 차이, 장애, 느린 발달로 인해 놀이에 충분히 참여하지 못한다면 영아의 배움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영아의 자유로운 탐색을 위한 움직임이 제한되거나 경험에 어려움을 주는 요소가 발견된다면, 교사는 환경 구성 또는 상호작용을 통해 이러한 부분을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놀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은 배움의 전제 조건이 되므로 교사는 환경이나 놀잇감 등을 살펴보고 상호작용을 개선함으로써 놀이 참여를 지원한다.

움직임과 탐색을 가로막는 환경요소 발견하고 지원하기

영아가 일상생활과 놀이를 직접 경험할 수 있도록 교사는 영아의 움직임이나 탐색을 방해하는 환경요소가 있는지 확인한다. 특히, 영아에게 시각장애가 있다면 움직임이나 탐색에 대한 동기가 생길 수 있도록 청각적 또는 촉각적 자극을 다양하게 제공하고 영아가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수시로 환경을 살펴본다.

- 시각장애를 가진 0세 민우가 움직이는 물체에 관심을 가지도록 방울이 들어 있는 공을 주고 공이 굴러갈 때마다 소리가 멀어지거나 가까워지는 것을 느껴보도록 하였다.
- 저시력을 가진 2세 소희가 안전하게 놀이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교구장 모서리에 바닥 색깔과 대비되는 빨간 테이프를 붙여 부딪히지 않게 하였다.

모든 영아를 위한 보육과정

시각장애 영아를 위한 다양한 감각 경험

시각장애를 가진 영아가 부족한 시각적 자극을 보완해 줄 정도로 풍부하고 다양한 감각을 경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눈을 찌르거나 몸을 앞뒤로 흔드는 등의 상동행동*이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시각장애를 가진 영아의 경우 다양한 감각을 경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신체운동·건강 - 다양한 감각을 경험한다). 이것은 장애 특성에 따른 지원이지만 동시에 다양한 감각을 경험하며 배우는 영아의 배움 지원이 되기도 한다.

* 상동행동: 특정한 소리나 단어를 반복해서 말하거나 같은 행동을 반복하는 것으로 명확한 목적이나 기능이 없어 보이는 경우가 많으며 보통 자폐 범주성 장애의 전형적 특성으로 설명되지만 다른 장애 특성으로도 나타날 수 있다.

독립적인 탐색 지원하기

영아가 가능한 한 독립적으로 움직이고 탐색하도록 환경을 구성하는 것은 다양한 영아가 표준보육과정의 5개 영역을 직접 경험하도록 하는 데 중요한 지원 방향이 된다. 특히, 지체장애를 가졌거나 운동 발달이 느린 영아의 경우 성인의 도움이 자주 필요할 수 있다. 이때, 교사는 가능한 한 직접적인 도움을 줄이면서 영아가 독립적으로 움직이고 탐색할 수 있도록 환경을 구성하고,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영아를 북돋아주도록 한다.

- 손에 힘이 없는 민우가 혼자서 놀잇감을 꺼내어 놀 수 있도록 놀잇감을 여러 바구니에 조금씩 나누어 담았다.
- 혼자서 양말을 벗지 못하는 현서가 양말 벗기를 시도해 보도록 헐거운 양말을 신게 하고, 양말 끝을 쥐기 쉽게 살짝 당겨 놓았다.

모든 영아를 위한 보육과정

지체장애 영아를 위한 대소근육 조절 지원 방법

일상생활은 영아에게 대소근육 조절을 경험할 수 있는 다채로운 사건들을 제공한다. 따라서 지체장애를 가졌거나 운동 발달이 느린 영아의 경우 일상생활에 필요한 활동을 직접 해보도록 하는 것 자체가 훌륭한 개별적 지원이 된다. 이때 교사는 가능한 한 영아가 독립적으로 조작할 수 있도록 자료를 수정하거나(예: 칫솔을 천이나 털실 등으로 두툼하게 감아서 잡기 쉽게 만들기) 혼자서 하기 힘든 활동의 경우 영아가 부분참여*를 통해 일부분이라도 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예: 혼자서 양말을 벗지 못하는 경우 교사가 양말을 절반만 당겨주고 영아가 나머지를 당기도록 하기 등) 대소근육 조절 등의 다양한 경험을 지원할 수 있다(**신체운동·건강 - 대소근육을 조절한다**).

* 부분참여: 어떤 과제나 활동 전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일부분이라도 담당하도록 기회를 주어 점진적으로 독립성을 높이기 위한 원칙이다. 단계적인 연습의 기회가 되기도 하고 일정한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성취감과 자신감을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영아의 흥미와 관심 따라가기

영아는 자신의 흥미와 관심을 토대로 스스로 배워 나간다. 따라서 개별 영아의 흥미와 관심은 영아가 표준보육과정의 5개 영역과 관련한 다양한 경험을 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나 때때로 교사는 특정 영아의 흥미와 관심을 알아내기 어려울 수 있다. 이런 경우 빛, 소리, 촉감 등의 감각자극으로 확장하여 영아의 흥미를 알아보고, 영아가 좋아하는 것을 해보는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교실을 이리저리 돌아다니기만 하는 승우가 부드러운 촉감을 즐긴다는 것을 알게 되어 교실 바닥에 보드라운 재질의 카펫을 깔아준 뒤 그 위에 다양한 촉감의 놀잇감을 두고 놀잇감을 탐색해보도록 하였다.
- 블록을 쌓고 넘어뜨리는 놀이만 반복하는 송아가 블록이 넘어지는 소리를 즐긴다고 생각하고, 같은 블록을 옆으로 늘어놓고 도미노 놀이를 하면서 송아가 관심을 보이는지 살펴보았다.

모든 영아를 위한 보육과정

흥미와 관심이 제한적인 영아의 흥미와 관심 활용

흥미와 관심이 제한적인 영아일수록 영아가 좋아하는 것을 통해 경험과 놀이를 확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교사는 영아가 좋아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의도적으로 선택의 기회를 제공하고 현재 영아가 즐기고 있는 재미 요소를 활용하여 다양한 움직임과 놀잇감 활용 등을 시도하도록 지원해야 한다. 특히, 발달이 느리거나 장애 특성으로 인해 흥미와 관심이 제한적인 영아의 경우, 영아가 좋아하는 것을 해보는 경험을 통해 다양한 놀이에 참여하도록 지원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표준보육과정 5개 영역의 다양한 경험으로 이어지게 할 수도 있다 (사회관계 - **0~1세** 나에게 친숙한 것을 안다, **2세**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해 본다).

영아의 또래 상호작용 지원하기

영아는 홀로 배우는 학습자가 아니라
'함께 배우는 학습자'이다.



모든 영아는 같은 공간과 같은 시간, 비슷한 놀이자료를 가지고 놀면서도 자신만의 방식으로 경험하고 고유한 보육과정을 만들어 간다. 이와 관련하여 교사는 영아들이 경험하며 배우는 다양한 내용을 파악하는 동시에, 영아들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함께 배우는 학습자'임을 기억해야 한다. 특히, 장애가 있거나 발달이 느린 영아의 경우 또래와 함께하는 놀이와 상호작용을 통해 더욱 의미 있는 배움을 경험한다.

영아는 또래와 함께하는 놀이와 상호작용을 통해 놀이의 즐거움을 느끼며 다양한 배움을 경험한다.

친구들 가까이에서 놀도록 지원하기

영아가 자신만의 방식으로 만들어 가는 배움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더욱 풍부해진다. 친구들 가까이에서 놀도록 지원한다면, 발달이 느린 영아에게는 모방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으며, 친구와 잘 어울리지 못하는 영아에게는 또래 관계 형성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이렇게 친구들 가까이에서 놀도록 지원하기 위해서는 영아의 흥미와 관심을 이용하는 것이 중요하며 때로는 환경을 바꿔주어 접촉의 가능성을 높일 수도 있다.

- 여름에 사용하던 작은 간이풀장을 교실에 가지고 와서 놀이공간으로 활용하자 다양한 영아들이 놀잇감을 가지고 간이풀장 안으로 들어가 함께 놀았다.
- 자동차를 좋아하는 은찬이와 또래들이 비슷한 놀잇감을 가지고 가까이에서 놀 수 있도록 영아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 교실의 한쪽 공간에 다양한 자동차를 비치하였다.

모든 영아를 위한 보육과정

친구들 가까이에서 놀면서 또래에게 관심을 가지도록 하기

또래와 가까운 곳에서 비슷한 놀잇감을 갖고 노는 것은 또래의 행동을 관찰하고 모방할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유용하다. 모방은 초기 학습의 중요한 경험이다. 특히 장애가 있거나 발달이 느린 영아의 경우, 또래에게 관심을 가지는 것은 관찰을 통한 모방의 필수 조건이며, 또래는 성인보다 더 자연스럽게 비계를 제공하여 영아의 발달을 촉진하는 데 효과적이다. 따라서 교사는 또래와 가까운 곳에서 놀 수 있도록 물리적 환경을 조성하고 함께 노는 즐거움을 느끼도록 지원함으로써 또래에게 관심을 가지는 경험을 할 수 있게 해야 한다(사회관계 - 0~1세 또래에게 관심을 가진다, 2세 또래와 함께 놀이한다).

또래 상호작용 기회 만들기

또래 가까이에서 노는 것만으로 상호작용이 일어나기도 하지만 교사가 의도적으로 또래 간 상호작용의 기회를 만들어 줄 필요도 있다. 영아의 또래 상호작용은 짧은 순간 일어나는 경향이 있지만 소통과 관계 형성의 기회로 활용할 수 있다. 영아들은 또래 상호작용을 통해 소통하는 방법을 배우고 사회적 능력을 발달시킨다. 교사는 모든 영아를 위해 또래 간의 상호작용이 가능한 한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베트남에서 이주해 온 연이 친구들과 함께 놀아보도록 지원하기 위해 가정과 연계하여 가족과 자주 하는 베트남의 전래놀이를 교실에서 친구들과 함께 해보았다.
- 등원하면 친구들끼리 서로 안아주며 인사하고 바깥놀이를 나갈 때 친구의 손을 잡고 즐겁게 노래 부르며 가보았다.

모든 영아를 위한 보육과정

또래 상호작용의 기회 제공하기

또래와 함께 놀이하는 상황은 영아에게 다양한 배움의 맥락을 제공하며, 특히 사회성 및 의사소통 기술은 놀이에서의 상호작용을 통해 터득할 수 있다. 따라서 발달이 느리거나 언어적 배경이 달라 또래와 소통하기 어려운 영아가 있다면 또래와 함께 즐겁게 놀아보는 경험을 함으로써 자연스럽게 의사소통 및 상호작용 방법을 터득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의사소통 - [0~1세]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으며 말소리를 낸다, [2세]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고 말한다).



3



모든 영아를 위한 보육과정 실행

1. 일상생활
2. 상호작용
3. 환경 구성 및 자료
4. 계획과 평가
5. 협력 지원



1

일상생활

아침 등원 시 영아, 교사, 부모가 함께
인사를 하며 즐거운 하루를 시작한다.

즐거운 일상생활 만들어가기

교사는 등·하원, 식사, 기저귀 갈기(배변) 등의 시간 동안 영아가 편안하고 즐거운 일상생활을 경험할 수 있도록 영아의 개별적 특성에 반응하면서 지원한다. 영아가 손 씻기, 이 닦기, 정리 정돈 등에 재미있게 참여할 수 있도록 격려하면서 일상생활이 놀이로 이어지도록 영아와 함께 시간을 만들어간다.

영아들은 기질이나 가정환경 등 여러 이유로 기관 적응에 차이를 보인다. 특히 이주배경 영아는 한국문화나 기관 생활에 대한 낯설음으로 인해 기관 적응 기간이 길어지거나 등원 시 주양육자와의 분리를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다. 이럴 경우, 기관에서 한국어 사용이 낮은 영아를 위해 이주배경을 고려하여 익숙한 언어로 인사를 나누거나, 가정에서 부르는 이름(애칭이나 부모 모어의 이름)을 불러준다(121쪽 사례 참조).

또한 특정 감각을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영아를 위해 일상생활을 좀 더 즐겁게 만들어가는 것도 중요하다. 예를 들어, 기저귀를 갈 때 감각적으로 불편해하는 영아를 위해 좋아하는 노래를 반복하여 부르거나 마사지를 해주는 등의 방법으로 편안한 분위기를 만들어간다. 이러한 경험이 반복되면 영아는 기저귀를 갈면 자신의 몸이 편안해진다는 사실을 인식한다.

기저귀 가는 시간을 편안하고 즐겁게 만들어 주어요



발달이 느리고 기저귀를 갈 때 감각적으로 불편해하는 서아(1세)를 위해 교사는 “기저귀 갈러 갈까?” 하고 부르며 다가가 안아주거나 손을 잡고 기저귀 같이대로 이동한다. 영아가 기저귀 같이대에서 모빌을 탐색하거나 교사와 눈을 마주치며 친밀감을 형성할 수 있도록 이야기 나누며 편안하게 눕도록 도와준다. 기저귀 갈기를 거부할 때는 영아가 좋아하는 노래를 부르며 교사의 손으로 영아의 몸을 살며시 주물러준다. 기저귀를 갈기 전 교사의 간단한 마사지를 받은 영아는 기분이 좋아진 듯 미소를 보인다.

등원 시간을 놀이로 이어가요

엄마와 헤어지는 시간을 유독 힘들어하는 이주배경 영아인 하나(1세)는 등원 후 엄마가 유아차를 두고 가는 장소를 바라보면서 더 잘 보기 위해 벽돌블록을 놓아본다. 이 모습을 본 다른 영아가 “같이 보자”하며 다가간다. 그러다가 벽돌블록을 연결하여 다리를 만들어 함께 걷는 놀이로 이어진다.



엄마가 가는 게
창문으로 보일텐데...



여기 위로
올라갈까?





특별한 놀이 놀으면
더 잘 보여!



우리 이걸로
다리 만들자.



건강하고 안전하게 생활하기

영아는 일상생활을 통해 건강하고 안전하게 생활하는 방법을 자연스럽게 알아간다. 교사는 모든 영아가 자신의 존재와 자신의 소중함을 알아가고, 건강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예를 들어, 모든 영아를 위한 환경 구성을 위해 시각적 자료를 활용할 수 있는데(80쪽 참조) 영아는 이 자료를 보며 손 씻기를 반복하는 동안 손을 깨끗하게 씻는 순서와 방법을 알아간다.

건강한 식습관 형성을 위해 가정과 연계해요



기관에서



가정에서

상우(1세)의 건강한 식습관을 위해 기관에서 시작했던 채소 놀이(16쪽 사례 참조)를 가정연계 놀이로 연결한다. 가정에서 다양한 음식 재료를 탐색해 볼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하고, 영아가 먹기 힘들어하는 재료를 사용하여 함께 요리한 후 먹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안내한다.

이 닦는 방법을 놀이와 시각자료로 설명해요

영아들에게 이 닦는 방법을 설명해 주면서 언어적 소통이 상대적으로 원활하지 않은 영아인 하나(1세)와 시은(1세), 그리고 준호(2세)를 포함한 모든 영아를 위해 모형 칫솔 놀이와 인형을 준비한다. 영아들은 교사의 시범을 보면서 그리고 또래와 함께 놀이하면서 이 닦는 방법을 알아간다. 또한 교사는 이 닦는 방법을 그림으로 준비하여 영아들이 볼 수 있는 세면대 거울에 붙여두고, 관련 내용의 사운드북과 그림책을 제공하여 모든 영아의 이 닦기를 지원한다.

1세



2세



영아의 요구와 경험 존중하기

서로 다른 요구와 경험을 지닌 영아의 개별 특성을 존중하면서 일상생활을 운영한다. 영아는 가정에서 서로 다른 경험을 한다. 교사는 어린 영아일수록 가정과 기관의 생활이 잘 연결되도록 영아의 경험을 존중하여 일과를 운영하고 일상생활을 지원한다. 특히 이주배경 영아의 경우 배경이 되는 나라마다 서로 다른 경험을 바탕으로 식습관이나 취침습관, 놀이 문화 등에서 다르게 행동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이해를 통해 지원할 수 있다. 장애 영아의 경우 비장애 영아와 다른 경험을 겪을 수 있고 장애 특성에 따라서도 경험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교사는 영아들의 일상 경험을 개별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그리고 개별 영아의 요구를 들어주는 동시에 주변의 다른 영아에게도 불편을 주지 않고 함께 즐거운 일상생활을 만들어갈 방법을 찾아볼 수 있다.

바깥놀이 시간에 보여주는 자신감을 실내놀이로 이어가요



시은(1세)이는 이주배경 영아이다. 시은이는 실내놀이에서는 소극적이지만 바깥놀이 시간에는 적극적으로 놀이에 참여하고 또래와 소통을 시도한다. 교사는 시은이의 부모님과 이에 관해 대화하면서, 시은이는 모국에서 주로 바깥놀이를 하며 자라서 요즘도 주말마다 가족이 함께 바깥놀이를 자주 한다는 이야기를 듣는다. 이에 바깥놀이 시간에 교사는 시은이에게 탐색한 것이 무엇인지, 주변에 무엇이 있는지, 어떤 소리가 들리는지 등을 물으니 웃는 얼굴로 아는 것을 이야기한다. 교사가 이어지는 실내놀이 시간에 시은이가 이야기한 것을 다시 말해주면서 신체로 표현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자, 시은이는 또래와 함께 즐겁게 자기표현을 해 보인다.

영아의 행동을 즐거운 놀이로 이어가요



또래보다 발달이 느린 나이(1세)는 식사 시간마다 숟가락으로 책상을 두드린다. 그 소리에 주변 또래가 손으로 귀를 막기도 한다. 하지만 교사는 관찰을 통해 나이가 하나의 놀이로 소리를 만들어 냄으로써 자극을 추구하는 것임을 알고, 소리를 통한 탐색과 배움을 존중한다.

교사는 모든 영아의 식사 시간과 놀이를 존중하며 지원하기 위해 식사 시간에 나이가 없는 책상에는 두꺼운 천을 깔아 숟가락으로 책상을 두드릴 때 큰 소리가 나지 않게 하여 주변 또래가 불편하지 않도록 한다. 또한 교사는 식사 시간이 아닌 놀이 시간에 소리자극을 추구할 수 있도록 영아들이 좋아하는 작은북, 벽에 두드리며 소리 내는 놀잇감 등을 제공하여 영아의 요구를 존중한다.

스스로 해보는 경험 존중하기

다른 영아들보다 조금 느리지만 스스로 시도하면서 배워가는 영아들이 있다. 낯선 환경에서 서툴러 보이지만 스스로 도전하는 영아들이 있다. 영아는 일상생활 중 다양한 시도를 하며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알아간다. 또한 영아는 주변 환경을 탐색하는 일상생활 속에서 호기심을 발현하고 상상력과 감성을 기르며 표현하는 과정을 거치며, 영아의 흥미와 관심을 따라 일어나는 일상생활 속 탐색과 소통은 놀이로 이어진다. 따라서 교사는 모든 영아의 배움을 위해 스스로 해보는 시간을 격려하고 그 경험을 지원한다.

또래와의 언어적 상호작용을 스스로 시도해볼 수 있어오



준호(2세)는 이주배경 영아로 한국어가 익숙하지 않다. 준호는 또래에게 직접 의사표현을 하지 않으려 하고, 또래와 놀이 상황에서 소극적인 모습을 보인다. 때로는 교사가 준호를 대신하여 또래에게 준호가 원하는 놀이를 말해 주기도 하고, 준호가 싫어하는 또래의 행동을 막아주기도 한다. 하지만 준호가 스스로 또래와 소통해 볼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부모와 의논하여 기관과 가정에서 '대신 말해주기 전에 잠시 기다리기', '준호의 마음을 서툴러도 언어로 표현할 수 있도록 격려하기'를 실천하며 준호의 언어적 소통에서의 배움을 지원한다.

스스로 신발 찾기를 지원해요



서준이(1세)는 발달이 느린 영아로 자신의 신발을 찾고 신는 것을 어려워한다. 교사는 처음에는 신발 찾고 신기를 도와주었지만 서준이가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스스로 배워 나갈 수 있도록 기다리고 지원해주기로 한다. 교사는 서준이의 신발 사진을 신발장에 붙이는 놀이를 통해 서준이가 자기 신발을 스스로 찾아 정리하는 경험을 반복적으로 제공한다. 또한 신발장에 서준이 얼굴 사진을 크게 붙여 자기 신발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한다. 이처럼 교사는 서준이가 스스로 하는 과정을 격려함으로써 성취감을 경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2

상호작용

모든 영아는
따뜻하고 긍정적인 상호작용 속에서 자란다.

영아가 이해하기 쉬운 방식으로 소통하기

영아와의 소통은 각 영아의 개별적 특성과 배경을 이해하는 데서 시작된다. 모어가 한국어가 아닌 영아나 언어 발달이 느린 영아와는 말로만 소통하기보다, 모어를 활용한 소통을 병행하거나, 영아가 따라하기 쉬운 간단한 몸짓언어를 함께 사용하면 더 효과적이다. 교사와 부모가 협력하여 일관된 몸짓언어를 개발하면 영아가 더욱 쉽게 익힐 수 있다.

감각적으로 특별한 요구가 있는 영아와는 맞춤형 접근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시각장애가 있는 경우 청각이나 촉각을 활용하고, 청각장애가 있는 경우 입모양을 명확히 보여주거나 주변 소음을 줄이는 방식이 유용하다. 그림카드나 사진 등 다양한 비언어적 매체를 활용하는 것도 효과적이다.

이처럼 영아의 발달적, 문화적, 감각적 필요에 반응하는 소통은 영아가 긍정적인 의사소통 경험을 쌓는 데 기여하며, 교사와 영아, 가정 간에 신뢰를 형성하고, 영아의 소통 능력을 점진적으로 발달시키는 기반이 된다.

영아의 모어를 연결해 소통해요



준호는 가정에서 주로 모어를 사용하는 이주배경 2세 영아이다. 교사는 준호가 기관에서도 안정감을 느끼며 소통할 수 있도록 부모님과 협력하여 모어와 한국어를 연결하는 방법을 마련한다. 간식 시간에 교사는 “슈이(水, 물).”이라고 준호의 모어와 한국어를 함께 말하며, 물컵 그림 카드와 함께 물컵을 보여준다. 준호는 교사의 말을 듣고 물컵을 들어 올리며 반응한다. 놀이 시간에는 준호가 좋아하는 동물 그림책을 활용해 모어와 한국어를 연결하며 상호작용을 이어간다.

이 과정에서 준호는 익숙한 모어를 통해 새로운 단어를 배우고, 교사와의 상호작용에 즐겁게 참여한다. 또한, 가정과의 협력으로 기관에서도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한다.

몸짓언어로 영아와 소통해요



울서는 아직 한 단어 발화만 하는 1세 영아이다. 교사는 울서가 소통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도록 부모님과 협력하여 공통의 몸짓언어를 개발하고 그림 카드를 활용한다. 예를 들어 놀이 시간에 울서가 한 번 더 하고 싶어 하면, 검지를 펴 숫자 1을 나타내는 손동작을 하며 “한 번 더 할래?”라고 말한다. 울서가 이를 따라 하면 교사는 즉시 칭찬하고 안아주며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이어간다. 또한, 울서가 물을 요청할 때 그림 카드와 손동작을 함께 사용해 의사를 표현하도록 유도한다. 울서가 의사를 표현하면 교사는 즉각적으로 반응하여 성공적인 소통의 경험을 쌓게 한다.

이러한 접근을 통해 울서는 효과적으로 의사를 표현하고, 점차 다양한 소통 방법을 시도하며 자신감을 키워간다. 교사와의 따뜻한 상호작용은 울서가 소통의 즐거움을 느끼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영아와의 소통을 돕는 몸짓언어

몸짓언어는

- 영아가 말을 배우기 전, 손동작과 몸짓을 통해 의사소통을 돕는 비언어적 표현 방식이다.
- 영아가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감정이나 필요를 간단한 손동작으로 전달할 수 있어 소통의 어려움을 줄이고 교사나 부모와의 정서적 유대를 강화하는 데 효과적이다.



몸짓언어 예시

안아주세요

- 교사나 부모를 향해 두 팔을 벌리는 동작
- 영아가 안아주기를 바랄 때 사용

더 주세요

- 손가락을 엄지와 둥글게 모은 후, 두 손을 가볍게 맞대어 두 번 부딪히는 동작
- 영아가 더 먹고 싶거나 놀이를 더 하고 싶을 때 사용

졸려요

- 두 손으로 머리를 받치는 동작
- 영아가 졸리거나 쉬고 싶을 때 사용

영아에게 흥미와 관심을 활용하여 상호작용하기

영아에게 익숙한 방식으로 상호작용 하는 것은 영아가 심리적 안정감을 형성하고 환경에 적응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영아가 자주 사용하는 놀잇감, 반복 행동, 음악 등 익숙한 활동을 통해 상호작용하면, 영아는 교실을 친숙하고 안전한 공간으로 느끼며, 교사와 긍정적인 관계를 맺게 된다.

장애 영아의 경우, 발달 특성과 선호를 반영한 접근이 효과적이다. 특정 놀잇감이나 행동에서 안정감을 느낀다면, 교사가 이를 관찰하고 함께 참여하며 관심을 공유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자폐 범주성 장애 영아가 자동차 문을 여닫는 행동에 몰두한다면, 교사는 유사한 기능을 가진 놀잇감(예: 상자, 인형의 집 문)을 제공하고, 점진적으로 새로운 경험을 추가하여 놀이를 확장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문이 열렸네! 다시 닫아 볼까?” 처럼 영아의 행동을 언어로 표현하면, 영아는 자신의 흥미를 더 잘 표현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고 사회적 관심도 넓힐 수 있다.

이주배경 영아의 경우, 가정에서 즐겨 듣는 동요나 즐겨 하는 활동을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부모로부터 영아가 좋아하는 노래를 공유받아 교실에서 활용하거나, 친숙한 리듬에 새로운 요소를 더하면 영아는 자신감을 얻고 상호작용에 쉽게 참여하게 된다.

이처럼 영아에게 친숙한 활동을 활용하면 영아는 안정감과 소속감을 느끼고 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게 된다. 이를 통해 교사와 신뢰를 형성하고 교실 환경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강화할 수 있다.

영아가 즐겨 듣는 모어 동요를 활용해 상호작용해요

시은이는 이주배경을 지닌 1세 영아이다. 시은이는 가정에서 모어 동요를 즐겨 듣는다. 교사는 시은이가 자연스럽게 상호작용에 참여할 수 있도록 부모님에게서 시은이가 좋아하는 동요를 공유받아 활동에 활용한다. 동요를 틀고 간단한 손동작을 따라하며 시은이와 즐겁게 상호작용을 시작한 후 시은이가 흥미를 보이자 친구들과 함께 춤을 추는 활동으로 확장한다. 그리고 같은 리듬에 한국어 동요를 접목하여 노래를 부르며 시은이가 새로운 언어를 자연스럽게 익히도록 돕는다.

시은이는 익숙한 음악을 통해 교사와의 상호작용에서 즐거움을 느끼고, 점차 새로운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시작한다.



놀이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행동을 활용해 상호작용해요



승주는 특정 행동을 반복하는 특성이 있는 2세 영아이다. 손가락으로 작은 구멍을 반복적으로 만지거나, 특정 질감의 공을 쥐는 행동을 자주 보인다. 교사는 승주가 이러한 행동에서 안정감을 느낀다고 판단하고 이를 기반으로 상호작용을 시도한다. 교사는 승주에게 익숙한 질감의 공과 구멍이 난 블록을 제공하며 놀이를 시작한다. “공을 굴러볼까? 블록 안에 넣어보자!”라고 말하며 승주가 이미 익숙한 행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돕는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승주는 교사와의 놀이를 즐기며 점차 새로운 놀잇감에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한다.

영아의 흥미와 경험을 활용하여 상호작용하기

영아의 흥미와 경험을 반영한 상호작용은 영아의 주도성을 존중하고 배움을 자연스럽게 지원하는 효과적인 방법이다. 영아가 관심을 보이는 대상이나 익숙한 경험을 활용하면 영아는 더 쉽게 참여하고 긍정적인 상호작용 경험을 쌓을 수 있다.

장애 영아와의 상호작용에서는 영아가 흥미를 보이는 요소를 발달 단계와 신체적 조건에 맞게 조정하여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신체 움직임이 제한된 영아에게는 영아가 관심을 보이는 놀잇감을 작은 힘으로도 조작 가능한 방식으로 제공하여 놀이를 확장할 수 있다. 교사는 상호작용 중 긍정적인 언어로 영아가 성취감을 느끼고 참여 의지를 높일 수 있도록 돕는다.

이주배경 영아의 경우, 가정에서 익숙한 문화와 경험을 놀이나 환경에 반영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예를 들어 부모님이 가게를 운영하는 영아에게는 시장이나 가게와 관련된 그림책이나 역할놀이를 통해 흥미를 유도할 수 있다. 영아는 익숙한 상황 속에서 자연스럽게 새로운 언어와 사회적 표현을 함께 익히게 된다.

이처럼 영아의 흥미와 경험을 기반으로 한 상호작용은 영아가 자신의 관심과 경험이 존중받고 있음을 느끼게 하며 놀이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한다. 이러한 접근은 영아에게 즐거움과 성취감을 제공할 뿐 아니라 영아와 교사의 관계를 강화하고 배움과 정체성 형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영아의 흥미를 기반으로 또래 상호작용을 지원해요



성하는 2세 영아로 뇌병변장애로 인해 이동과 신체 조작에 어려움이 있다. 성하는 특정 소리와 밝은 색의 물체에 흥미를 보인다. 교사는 성하의 관심사를 활용해 상호작용을 시도하고, 또래와의 놀이로 확장한다. 교사는 성하의 발목에 밝은 색 끈과 방울을 달아 시각과 청각을 동시에 자극하며 “다리를 흔들어봐. 딸랑딸랑 소리가 나네! 다리를 흔들어 볼까?”라고 말하며 반응을 유도한다. 성하가 다리를 살짝 움직이면, 교사는 이를 격려하며 놀이를 이어간다. 이후, 또래 친구들에게도 놀이를 제안하며, “이번엔 성하 차례야. 다리를 흔들어 볼까?”라고 격려하고, “잘했어! 이제 친구 차례야!”라고 자연스럽게 또래와의 상호작용을 유도한다.

이 과정에서 성하는 점차 또래와의 놀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교사와 친구의 격려 속에서 함께 하는 즐거움과 성취감을 느낀다. 또래와의 놀이를 통해 성하는 사회적 관계와 소통 능력을 키워 나간다.

영아의 경험을 바탕으로 역할놀이를 지원해요



지아는 2세 이주배경 영아로 기관에 천천히 적응하고 있다. 지아와 친구들은 가족들과 함께 붕어빵을 사 먹었던 경험을 특별하게 기억하고 있었고, 교사는 이를 바탕으로 붕어빵 가게 역할놀이를 준비한다. 가판대를 마련하고 붕어빵을 사고파는 상황을 재현하며, 지아가 익숙한 경험을 떠올리며 놀이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다. 또한, 교사는 지아의 부모님에게서 배운 모어 단어를 활용해 “이것 사세요.”와 같은 표현을 사용하며 지아뿐만 아니라 다른 이주배경 영아들도 자연스럽게 놀이에 참여하도록 유도한다.

이 과정에서 지아는 가게 역할놀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교사와 친구들과의 상호작용에서 자신감을 키워간다. 놀이를 통해 자신의 흥미를 표현하고 기관 환경에 대한 친숙함과 소속감을 느끼며 더욱 편안하게 적응해 나간다.

영아 간 포용적 상호작용 지원하기

교실은 다양한 특성과 배경을 가진 영아들이 함께 어울리며 성장하는 공동체이다. 교사는 영아들이 놀이와 일상에서 서로 어울리며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경험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예를 들어, 모든 영아가 참여할 수 있는 협력 놀이를 마련하면, 영아들은 함께하는 즐거움을 느끼며 자연스럽게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다. 영아들은 서로 다름을 발견하고 질문하거나 궁금해할 수 있다. 이때 교사가 따뜻하고 수용적인 태도로 대응하며, 차이를 존중하는 언어를 모델링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친구의 손이 너와 조금 다르지만, 너처럼 똑같이 블록 놀이하는 것을 정말 좋아한다.”와 같은 긍정적이고 담백한 설명을 통해 영아들이 차이와 공통점을 동시에 이해하도록 돕는다.

질문의 대상이 된 영아가 반복적으로 주목받아 불편함을 느낄 경우, 교사는 개별적인 시간을 마련해 해당 영아가 자신의 특성을 긍정적으로 인식하도록 도와야 한다. “OO는 정말 특별하고 멋진 점이 많아.”와 같은 말로 긍정적인 자아 인식을 강화하고, 자신감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차이를 다룬 다양한 그림책을 영아 수준에 맞게 활용하여 영아들이 자연스럽게 차이를 받아들이고, 타인의 특성에 공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교사의 세심하고 포용적인 태도는 영아들이 서로 감정을 이해하고, 공감과 배려를 배우며 조화로운 관계를 형성하는 데 밑거름이 된다.

이처럼 영아 간의 포용적인 상호작용을 지원하는 접근은 영아들이 차이를 존중하고 수용하는 문화를 형성하도록 돕는다. 교사가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달하고 영아들의 질문에 열린 마음으로 응답하면, 영아들은 차이를 존중하는 방법과 공감하고 배려하는 태도를 자연스럽게 익히게 된다. 이는 서로를 존중하며 조화로운 관계를 맺는 데 중요한 첫걸음이 된다.

서로의 다름을 존중하며 함께 성장해요



성하는 2세 영아로, 후천적 이유로 왼손 엄지와 검지가 짧으나 다른 손으로 대부분의 일을 잘 해내려 한다. 어느 날, 예룩이가 “성하는 왜 손이 다르게 생겼어?”라고 묻자 교사는 먼저 성하의 어깨를 가볍게 쓰다듬으며 안심시켜준다. 그런 다음 예룩이의 눈높이에 맞춰 차분히 미소를 지으며 답한다. “궁금했구나. 성하는 아기였을 때 아팠었는데 씩씩하게 지내면서 상처가 남았어. 예룩이도 피가 나고 나면 상처가 남을 수 있지? 그리고 우리 얼굴이 다 다른 것처럼 사람마다 손이나 발 모양이 달라. 예룩이의 손과 선생님 손도 다르게 생겼지? 한 번 비교해볼까?” 교사는 자신의 손을 내밀며 예룩이와 비교해 본다. 예룩이는 손을 비교하며 흥미를 보였고 교사는 “예룩이의 손은 정말 작고 부드러구나.”라고 다정하게 말한다. 이어서 교사는 성하가 블록을 쌓는 모습을 보며 “성하야, 정말 멋진 탑이네! 조심조심 쌓으니까 블록을 떨어뜨리지 않고 높이 올릴 수 있구나!”라고 칭찬한다. 성하는 환하게 웃으며 블록을 더 쌓았고, 교사는 예룩이에게 “예룩이도 성하랑 함께 블록 쌓아볼래?”라고 제안한다. 예룩이는 성하 옆으로 가서 블록을 쌓기 시작한다.

이 과정에서 영아들은 교사의 따뜻한 관심과 지지를 통해 서로의 다름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협력과 공감을 배운다. 이러한 경험은 영아들이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함께 성장하는 데 중요한 발판이 된다.

3

환경 구성 및 자료



기관은 모든 영아가 편안히 적응하고
자발적 탐색이 이루어지도록 환경을 구성한다.

발달 지원을 위한 환경 마련하기

영아 개별적인 특성과 함께 영아의 발달 특성을 고려하여 건강한 발달을 지원하기 위한 방향으로 놀잇감을 제공한다. 모든 영아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특히 기존에 제공하였던 놀잇감에 더하여 모든 영아가 놀이에 참여하고 배움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돕는 놀잇감이나 환경을 마련한다.

예를 들어, 감각적으로 예민한 영아는 교실 맨바닥에 앉아 놀이하기를 거부하고 소파 위에 머물기를 선호한다. 바닥 생활 문화를 경험해 보지 않은 이주배경 영아도 동일한 반응을 보이기도 한다. 이때 교사는 영아를 위해 교실에 매트를 깔아주어 영아가 안정감을 느끼며 놀이에 참여할 수 있도록 환경을 지원할 수 있다.

신체 균형을 잡기 어려워서 자주 넘어지는 영아는 매트 위로 올라가서 놀이하려는 모습을 자주 보이곤 한다. 이러한 경우, 교사는 영아의 신체 발달을 돕기 위해 폭신하고 안전한 매트 놀이를 자주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교실 중앙에 있던 매트를 한쪽 벽면으로 붙이고 균형 잡기가 어려워 자주 넘어지는 영아의 한쪽 손을 잡아주며, 영아가 반대편 손으로는 벽을 잡고 매트 위를 걸거나 움직일 수 있도록 지원한다.



매트와 선호하는 놀잇감 제공하기



매트 위를 걸을 수 있도록
손잡고 함께 걷기

신체 발달이 느린 영아는 벽면에 붙은 끼적이기 판을 이용하기 어렵다. 키가 작고 몸의 균형을 잡기 어려워 또래들에게 밀려 넘어지기도 하고, 소근육의 힘 조절이 어려워 벽면에 그림을 그리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경우, 교사는 바닥에 커다란 전지를 펼쳐 주어 영아가 그 위에 안정적으로 앉아 끼적하기를 즐기고 소근육 사용에도 더 편안함을 느끼도록 지원할 수 있다.



가족사진을 붙인 전지를 바닥에 펼쳐주기

신체적으로 발달이 느리고 몸의 균형을 잡기 어려워하는 영아에게는 영아용 팔걸이의자를 제공한다. 놀이 중 앉은키가 작아 책상에 턱을 다치는 경우가 있으므로, 팔걸이의자를 사용하면 상황이 줄어들고, 또래들을 바라보고 놀이에 참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영아용 의자에 앉음으로 몸의 균형감각을 기르며 바른 자세를 유지할 수 있다.



영아용 팔걸이의자 제공하기



영아용 팔걸이의자 활용하기

대소근육 발달이 느린 영아를 위해서는 비교적 가느다란 색연필보다는 손에 힘이 없어도 쥐기 쉽고 발색이 잘 되는 굵은 크레용을 제공한다. 이뿐만 아니라 다양한 감각을 느껴볼 수 있는 놀잇감을 조작해볼 수 있도록 지원한다.



잡기 쉬운 크레용 활용하기



다양한 감각 느껴지는 인형 제공하기



한편 모든 영아 중에서는 다음 일과를 이해하기 어렵거나, 다음 일과를 예측할 수 없으면 크게 불안해하거나, 언어적 소통이 느린 영아가 있다. 이러한 영아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영아가 이해하기 쉽도록 보여주는 시각적 지원이 필요하다.



손 씻는 순서대로 사진 제시하기



핸드타올을 1장씩 사용할 수 있도록
1을 표시한 검지 사진 제시하기



일과를 이해할 수 있도록
순서대로 사진 제시하기



정리 시간 등 시간을 예측할 수 있도록
타이머나 모래시계 제공하기

감각을 탐색하는 놀잇감 더해 주기

모든 영아에게는 가정에서 경험하기 어려운 환경을 제공하여 다양한 감각을 느끼고 실험해 보는 경험을 제공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 소리가 나는 장난감으로 전화 놀이를 함께 해보거나, 부모와 상담하며 영아가 좋아하는 색에 대한 정보를 알아두었다가 좋아하는 색이나 촉감의 놀잇감을 제공해 주면서 영아에게 친숙한 감각부터 새로운 감각까지 점차 탐색해 보도록 지원한다.

예를 들어, 특정 감각을 즐기며 노는 영아들을 위해 선호하는 공간에서 선호하는 감각과 물건을 활용하여 다양한 놀이가 이루어지도록 지원할 수 있다.



빛을 좋아하는 영아의 놀이를 위해
꼬마전구 제공하기



입으로 무언가 넣기를 추구하는 영아를 위해
식용색소를 넣은 반죽 제공하기

네모 모양을 좋아하는 영아, 작은 담요를 좋아하는 영아, 빗소리를 좋아하는 영아 등 영아가 선호하는 것은 저마다 다양하다. 감각이 예민한 영아는 개인적 특성에 따라 애착을 느끼는 놀잇감이 있고, 감각적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견디기 힘들어한다. 여러 가지 이유로 집에서 좋아하는 놀잇감을 가지고 등원한 뒤 그 놀잇감만을 고수하는 영아도 있다. 교사는 놀잇감을 다양한 용도로 놀이에 사용하는 방법을 알려주며, 영아의 흥미와 관심에서부터 놀이 지원을 시작할 수 있다.

네모 모양이 좋아요



발달 지연을 보이는 규호(1세)가 등원하자마자 네모 모양의 벽돌블록을 들고 온다. 그리고 규호는 벽돌블록을 들고 교실을 반복적으로 돌아다닌다. 교사는 규호가 선호하는 벽돌블록으로 먼저 높이 쌓기를 시작한 후에 규호를 부르며 놀이 참여를 제안한다. 손을 잡아주며 규호의 손에 있는 벽돌블록을 쌓아볼 수 있도록 지원하자 규호는 자신이 들고 있던 벽돌블록과 교실에 있는 벽돌블록을 번갈아 쌓으며 안정적으로 놀이에 집중하여 참여한다. 이 모습을 본 또래 영아들도 벽돌블록 쌓기 놀이를 시작한다.

특정한 촉감을 싫어하는 영아들에게는 다른 놀잇감을 제공하여 놀이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물감의 느낌을 불편해한다면 도장처럼 찍을 수 있는 도트물감을 제공하여 물감을 만지지 않고도 놀이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모래놀이 시간에 모래를 만지기 싫어하는 영아에게는 삽을 준비해주면 자신만의 방식으로 즐겁게 모래놀이에 참여하게 된다. 이를 통해 영아가 차츰차츰 모래를 만질 수 있도록 격려해줄 수 있다. 한편 주변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자연물과 같은 비구조화된 자료를 제공해 주는 것도 모든 영아의 감각을 위해 중요하다. 기관과 가정의 일상생활에서 자주 접하는 친숙한 소재를 놀이자료로 제공하여 영아가 주도적으로 놀이할 수 있도록 지원하거나, 이주배경 영아들도 많이 접해 본 경험이 있는 자료를 선택하여 놀이할 수 있도록 교사의 지원이 필요하다. 산책과 텃밭, 바깥 놀이, 등·하원 길에 만나는 자연물도 모든 영아가 오감을 활용해 탐색하고 아름다움을 느끼는 주요한 소재이다.



부드러운 촉감의 놀잇감을
이용하여 놀이하기



밀가루 놀이하기



낙엽 밟기 놀이하기

영아를 위한 특별한 공간 만들기

영아의 개별적 요구를 고려하여 환경을 구성한다. 예를 들어, 일과 중 자주 불안함을 느끼는 영아들을 위해 휴식하기에 알맞은 특별한 공간을 마련해 줄 수 있다. 촉감과 감각에 민감한 아이들을 위해 부드러운 촉감과 폭신한 쿠션을 제공해 주어 기관에서 편안함을 얻도록 지원한다.

공간 구성 시 이주배경 영아에게 편안한 공간이 되도록 다양한 문화를 고려한 자료를 함께 제시한다. 예를 들어, 일상생활을 안내하는 자료에 재원하는 이주배경 영아의 민족 또는 문화의 이미지가 담기도록 준비한다. 이주배경 영아가 가족과 함께 찍은 가족사진을 교실 내 특정 공간에 전시하여 이주배경 영아에게 친숙한 공간을 만들어주고, 또래와도 공유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교사는 해당 반의 구성원인 영아들의 요구와 특성을 고려해 영아가 쉽게 놀잇감을 선택하도록 환경을 구성하며, 영아가 자발적으로 놀이에 참여하도록 교실 공간도 계획한다. 예를 들어 시각장애나 지체장애를 가진 영아의 경우 혼자서도 놀잇감을 꺼내서 놀 수 있도록 영아의 특성에 따라 잘 보이는 곳에 교구장을 배치하거나 장애물을 없애는 것이 좋다.

텐트 안에 있으면 편안해요



호준이(1세)는 이주배경 영아이다. 호준이는 불편한 감정이 생길 때 감정을 조절하기 어려워한다. 평소 교실에서 폐쇄적인 공간에 혼자 있기를 좋아하는 호준이를 위해 교사는 텐트를 마련해준다. 그리고 호준이가 불편한 감정을 표현할 때는 조용한 자신만의 공간에서 편안하게 쉬면서 안정감을 갖도록 해준다.



텐트를 본 다른 영아들도 텐트에 관심을 보여 놀이용 텐트를 넉넉하게 준비하고, 텐트 안에 베개와 인형 등을 마련해준다. 이를 통해 개별 영아를 위한 환경 구성이 반 전체 영아의 놀이로 확장될 수 있다.

영아의 놀이 공간 확장하기

모든 영아가 놀이 공간에 제한을 받지 않도록 지원한다. 장애 혹은 발달이 느린 영아의 경우 신체적 제약으로 인해 놀이 공간이 한정적일 수 있다. 이러한 경우 가능한 도구를 활용하여 영아의 놀이 공간을 확장할 수 있다.

앉은 자세를 유지하기 어려워하는 영아의 경우, 또래와 함께 다양한 놀이에 최대한 참여해볼 수 있도록, 그리고 다양한 자세로 놀이를 경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예를 들어, 장애아의 착석 자세를 도와주는 보조기구인 피더시트에 앉아 안정적인 자세로 놀이를 경험해보도록 지원할 수 있다. 장애아용 유아차를 이용하면 영아가 바깥 놀이나 신체 운동을 경험하게 되면서 활동과 경험의 범위가 자연스럽게 확장된다.

한편 자료나 기구의 제공뿐만 아니라 때로는 물리적 환경 조성을 통해서도 다양한 움직임의 동기를 만들어 줄 수 있다. 예를 들어, 걷기 연습이 필요한 영아를 위해 바닥에 테이프를 붙여서 선을 만들어준다. 이는 선 따라 걷기 놀이가 되기도 하고 기차놀이가 되기도 한다. 이러한 놀이는 모든 영아가 새로운 움직임을 경험하게 할 수도 있고, 자주 접근하지 않았던 공간까지 이어주는 역할도 한다. 문화적 차이로 인해 공간에 낯설음을 느끼던 영아도 놀이를 통해 여러 공간을 구석구석 다니며 탐색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



피더시트에 앉아 안정적인 자세로 놀이 경험하기



선을 따라 걷기 연습하기



장애아동용 유아차를 사용하여 활동 영역 넓히기

특별함을 더하는 환경 구성

시각장애 영아를 위해서는

- 학기 초에는 영아의 손을 잡고 교실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충분히 탐색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 가능한 한 교실 배치를 변경하지 않는 것이 좋지만 놀이 과정에서 변경해야 한다면 영아가 바뀐 위치를 기억할 수 있게 한다.
- 저시력 영아의 경우 안전하게 환경을 탐색할 수 있도록 대비가 분명한 색깔의 절연 테이프를 사용해서 경계를 표시하거나 놀잇감과 색깔 대비가 분명한 매트를 깔아준다.



청각장애 영아를 위해서는

- 소음을 줄이기 위해 바닥에 매트를 깔거나 시끄러운 영역과 조용한 영역을 분리하는 등 환경을 수시로 점검한다.
- 인공와우를 착용한 영아의 경우 자석 놀잇감이 영아 머리 쪽에 닿지 않도록 주의한다.

지체장애 영아를 위해서는

- 가능한 한 독립적이고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환경을 점검하고 이동 통로를 충분히 확보한다.
- 기어서 이동하는 영아의 경우 좋아하는 놀잇감을 교구장 아래쪽에 비치한다.
- 소근육 조작성이 어려운 영아를 위해 사용하기 쉬운 놀잇감이나 도구를 비치하고, 놀잇감을 적은 양으로 나누어 담아 바구니의 무게를 줄인다.

4

계획과 평가



교사는 모든 영아를 위한 보육과정 운영을 위해서
계획하고 평가한다.

계획하기

모든 영아를 위한 보육과정 운영 계획은 관찰한 정보를 토대로 세워야 한다. 모든 영아의 놀이를 관찰할 때는 다음과 같은 부분에 중점을 둔다. 교사가 모든 영아의 놀이에 귀 기울여 유능함 및 강점, 흥미와 관심, 발달 수준, 행동 특성을 파악하고 놀이 중에 일어나는 영아의 배움을 읽어 필요한 배움 지원과 또래와의 놀이 기회를 제공한다면 영아의 발달에 도움이 된다.

유능함 파악하기

모든 영아도 영아로서의 특성을 가지고 발달한다. 교사는 호기심을 가지고 주변을 살펴보고 탐색하는 과정에서 보여주는 영아의 유능함이 어떤 행동으로 나타나고 있는지 살펴본다. 특별한 요구가 있는 영아들이 또래보다 발달상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으나 특정한 재능을 보여줄 수도 있다. 또는 영아가 또래와는 달리 특정한 대상에 특이하거나 과도한 관심을 보인다면 이를 영아의 상호작용이나 놀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여기기보다는 영아의 특별한 관심 영역으로 파악하여 놀이나 활동에 참여하도록 동기유발을 유도하는 데 활용하는 긍정적인 관점이 필요하다. 영아의 타고난 개인적 성격, 성품, 성향, 태도를 세심히 관찰하여 개별적인 강점으로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모든 영아의 발달을 지원하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은 각 영아의 유능함과 강점을 파악하는 것에서 시작한다.

- 특정한 재능
- 특별한 관심 영역
- 개인적 성격, 성품, 성향, 태도

도구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요



준서(1세)는 아직 소근육 발달이 충분하지 않아 가위를 쥐는 동작도 서툴고 종이를 자르는 힘도 약하다. 하지만 교사가 가위질을 잘하지 못하는 아이로 인식하지 않고 가위라는 도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유능함을 지닌 아이로 여겨 다양한 도구를 제공한다면, 준서는 여러 도구를 사용하면서 소근육을 발달시킬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유능함'은 무언가를 완성하는 능력을 의미하기보다는 준서가 가위와 같은 도구에 관심을 가지고 서툴더라도 계속해서 사용해 보는 모습을 가리킨다.

흥미와 관심 따라가기

이주배경 영아를 비롯하여 발달이 느린 영아나 장애 영아는 또래보다 구어로 의사소통하는 능력을 제한적으로 발달시키거나, 주의집중이 짧아 놀이에 몰입하기 어려워하거나, 혼자 놀이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이에 교사는 모든 영아가 흥미와 관심을 보이는 곳에서 놀이를 시작할 때 영아의 놀이 참여가 적극적으로 일어난 것을 기억하여 이를 모든 영아의 놀이를 지원하는 전략으로 활용할 수 있다. 관찰을 통해 영아가 좋아하는 놀잇감, 놀이, 놀이영역, 놀이 상대자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놀이에 참여하도록 동기를 유발하고 놀이를 지원한다. 한두 가지 놀잇감이나 놀이에만 관심을 보이는 영아의 경우 영아가 관심을 보이는 대상을 미리 파악하여 놀이 지원에 활용하면 유용하다.

- 좋아하는 놀잇감: 영아가 스스로 선택하여 놀이하는 놀잇감이 무엇이며 놀잇감의 공통된 특성이 무엇인지 관찰한다.
- 좋아하는 놀이: 영아가 어떠한 놀이에 관심을 보이고 좋아하는지 관찰한다.
- 좋아하는 놀이 영역: 영아가 자주 놀이하거나 오래 머무는 놀이영역이 특정하게 있는지 관찰한다.
- 좋아하는 놀이 상대자: 영아가 놀이 중에 상호작용하는 상대자로 선택하는 또래, 다른 연령의 영유아, 교사, 성인이

누구인지 관찰한다. 혼자 놀이하는 영아는 직접적인 상호작용보다는 결눈질, 주위 맴돌기와 같은 찰나에 일어나는 행동으로 호감을 표현하기도 한다.

좋아하는 놀잇감을 지원하니 놀이에 참여해요



민우(2세)는 뇌병변장애로 인해 토래에 비해 전반적으로 발달이 느리고 놀이에 참여하기 어렵다. 무더운 여름날에 2세반 영아들이 실외놀이터에서 이리저리 돌아다니며 물놀이를 한다. 햇빛에 반짝이는 물줄기를 보고 물을 모래놀이장에 퍼다 나르며 즐거워한다.

민우는 물놀이가 익숙하지 않고 몸에 물이 튕까 봐 조심스럽게 서 있다. 교사는 어떻게 하면 민우가 물놀이를 재미있어하며 참여할지 고민하다가 민우가 평소에 교실에서 자주 가지고 놀던 동물 모양 놀잇감을 떠올린다. 민우에게 이 놀잇감을 가져다주자, 처음에는 혼자서 놀잇감만 쓰다듬다가 동물 모양 놀잇감에 물을 담아 여기 저기 뿌려보고 물을 담아오기를 반복하면서 민우는 점차 물놀이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친구와 같이 자동차 놀이를 해요



민규(2세)는 중국인 어머니와 한국인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로, 자동차를 특히 좋아해서 교실에 있는 파란색 자동차를 모두 자기 것으로 여기며 혼자 놀이한다. 그러다 다른 또래들이 자신의 자동차에 손을 대면 다툼이 일어난다. 교사는 민규가 또래들과 놀이하도록 교실에 파란색 자동차의 개수를 늘려 보지만, 민규는 자신의 파란색 자동차를 가지고 혼자 놀면서 또래들이 자신의 자동차를 만지지 못하도록 다룬다.

이에 교사는 민규가 종종 환이(2세)가 노는 모습을 쳐다보던 것을 떠올리고서 환이에게 똑같은 파란색 자동차를 주고, 도로 테이프 위에서 함께 자동차 놀이를 하게 한다. 환이는 도로 테이프 위에서 자동차를 굴리기도 하고 멈추기도 하며 즐겁게 놀이하고, 민규는 그런 환이의 모습을 가만히 바라보다가 자신도 도로 테이프 위에 자동차를 올려놓고 굴리며 환이를 따라 놀기 시작한다. 민규는 점차 환이와 함께 자동차를 굴리고 멈추며 놀이에 참여한다.

발달 정도를 세밀하게 읽기

영아가 필요로 하는 반응적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발달영역별로 현재의 발달 정도를 파악해야 하는데 모든 영아에 대해서는 좀 더 세밀한 배움 읽기가 필요하다. 교사가 영아의 놀이에 귀 기울여 놀이 중에 영아가 보여주는 여러 가지 행동으로 발달 수준이나 행동 특성을 파악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같다. 그러나 이주배경, 장애, 발달이 느린 영아의 경우에는 또래보다 탐색하는 시간이 길거나, 발달 속도가 느리거나, 발달이 작은 변화로 나타나기 때문에 교사가 세밀하게 관찰하여 자세한 배움 읽기를 해야만 이러한 발달에서의 변화를 알아차릴 수 있다. 발달에 어려움이 있을 때 영아가 보일 수 있는 행동을 발달영역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신체운동 발달: 대근육 발달이 지체되었다면, 영아가 스스로 이동하거나 움직이기 어렵거나, 앉은 자세를 유지하기 힘들 수도 있어 또래들과 어울려 놀이하는 데 제약이 있다. 걸음이 불안정한 경우에는 놀이 중 자주 넘어지거나 사물에 부딪힐 수 있다. 소근육 발달이 느리다면, 놀잇감을 조작하는 데 서툴고 풀, 가위, 그리기 도구 등을 사용하기 어려워한다.
- 의사소통 발달: 이주배경 영아는 이중언어를 사용하여 의사소통 발달에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발달이 느린 영아나 장애 영아 중에도 발달상의 지체가 의사소통에서 먼저 나타나기도 한다. 영아는 의사표현 시 구어로 표현하기보다는 몸짓을 사용하거나 울음이나 소리 지르기, 때리기, 또래의 물건 뺏기 등의 행동을 보이기도 한다.
- 사회·정서 발달: 영아가 혼자서 위축되어 있거나 놀이를 하더라도 주변 또래나 교사에게 관심을 보이지 않거나 눈을 맞추거나 쳐다보기만 하는 정도의 상호작용도 드물게 일어난다. 영아가 불편한 감정을 느낄 때 감정을 다스리고 기분 전환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거나 혼자만의 장소가 필요할 수도 있다.
- 인지 발달: 영아가 주의력이 짧거나 기억력이 또래보다 제한되어 일상생활이나 놀이 중에 다른 사람의 행동을 모방하거나, 자연스럽게 학습하는 모습이 드물게 나타난다. 새로운 놀이에 대한 동기유발도 낮은 편이다.
- 적응행동 발달: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기술인 간식 및 식사하기, 손 씻기, 옷 입고 벗기, 배변 훈련 시작하기 등의 자조기술이 서투르거나 이를 수행하기 어렵다.

펜을 잡고 유지하는 시간이 늘어났어요



은우(2세)는 뇌병변장애로 인해서 몸 전체의 근육 힘이 약하여 앉은 자세를 유지하기 힘들고 소근육 발달도 느리다. 교사는 은우가 펜을 주먹으로 쥐고서 끄적이는 모습을 보고, 은우가 여전히 펜을 손가락으로 잡지 못하고 획을 긋기도 어려워하니 소근육 발달에 진전이 없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교사는 여러 번의 관찰기록을 살펴보면서 은우가 주먹으로 펜을 쥐고서 유지하는 시간이 그전보다 조금 더 늘어난 점을 발견한다. 교사가 관찰을 세밀하게 하지 않았다면 은우의 미세한 발달상의 진전을 놓쳤을 것이다. 이렇듯 교사의 자세한 배움 읽기는 중요하다.



행동 특성 파악하기

영아기에는 의사소통 능력과 사회적 상호작용 기술 발달이 아직 미흡하여 자신의 요구를 여러 가지 행동으로 표현한다. 따라서 교사가 놀이와 일과 중에 나타나는 영아의 행동을 유심히 관찰하여 영아의 행동 특성과 영아가 말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 살펴보는 시도는 중요하다.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행동은 영아의 발달 과정상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행동일 수 있다. 그러나 다수의 교사가 영아의 행동으로 이해하는 범위를 벗어나는 행동에 대해서는 필요한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 의존적 행동: 자기 나이보다 더 어린 영아처럼 행동하거나, 스스로 새로운 경험을 시도해 보고 주변 환경을 탐색하면서 자조기술을 발달시키기보다는 계속해서 교사를 찾으며 교사에게 해달라고 요구하는 행동을 보인다.
- 불안 행동: 낮가림이 심하거나, 등원 시 부모와의 분리불안으로 등원을 거부하거나 우는 행동을 보인다. 익숙하지 않거나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 불안감을 느끼며 울음, 거부, 짜증 등으로 이를 표현한다.
- 공격 행동: 타인에게 공격성을 나타내어 다른 사람 때리기, 물기, 꼬집기, 머리카락 잡아당기기, 눈 찌르기 등의 행동을 보인다. 자신에 대한 자해행동으로 머리를 벽이나 책상에 박기, 자신의 손이나 팔 물기, 자신의 머리카락 뽑기 등의 행동이 해당한다. 공격 행동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영아와 다른 사람에 대해 보호조치를 취한 다음 적극적인 행동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 방해 행동: 보육과정 운영을 방해하는 행동으로 교실 뛰어다니기, 교실 밖으로 나가기, 교실에서 소리 지르기, 과잉 행동 등을 보인다. 방해 행동은 보육과정을 운영하기 어렵게 만들 뿐 아니라 영아 자신도 이로 인해 놀이와 일과를 통한 다양한 배움의 기회를 놓치기 쉬워 발달과 긍정적인 사회적 관계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영아가 이러한 행동을 자주 한다면, ABC 서술식 사건표집법을 활용하여 행동(Behavior)만을 관찰하기보다는 행동하기 전에 일어난 상황(Antecedents)과 행동 후에 경험하는 일(Consequences)도 함께 관찰하여 정보를 수집한다. 이 방법은 영아가 특정 행동을 하는 의도, 원하는 바를 분석하는 데 도움이 된다.

“물고기”, “fish” 두 개의 언어 모두 말해 주어요



달이(2세)는 미국인 어머니와 한국인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나 최근에 기관에 왔다. 어느 날 바깥놀이 후에, 교사는 신발을 벗고 들어온 달이와 또래들에게 “물고기를 보며 앉아서 다른 친구들이 들어올 때까지 기다려볼까?”라고 말한다. 교사는 달이와 또래들이 기관 문 앞에 있는 수족관 속 물고기를 무척 좋아하기에 물고기를 보며 잘 기다릴 것으로 생각한다. 교사가 여러 번 말하자, 영아들은 점차 물고기가 있는 수족관 앞에 앉아 다른 또래를 기다리지만, 달이는 다른 장소로 혼자 이동하다가 넘어지기도 하고, 또래들 사이를 지나가면서 머리를 때리거나 얼굴에 상처를 내기도 한다.

교사는 달이가 왜 이렇게 행동하는지 고민하던 중에 달이 어머니가 등하원 시에 달이에게 수족관의 물고기를 가리키며 “fish”라고 말하는 모습을 본다. 교사는 ‘달이가 물고기라는 한국어를 몰라서 다른 곳으로 가려다가 또래들을 밀쳤구나.’라고 생각한다. 교사는 달이에게 “물고기”와 “fish”를 둘 다 말해주고, 달이 부모님에게 달이에게 한국어로 “물고기”를 말할 때 함께 말해주도록 요청한다.

평가하기

모든 영아를 위한 보육과정 운영에 대한 평가는 이주배경, 장애, 발달이 느린 영아에게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와 관련한 정보를 수집하여 이루어진다. 교사는 수집한 정보를 다양한 관점으로 해석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모든 영아의 발달에서 이루어진 긍정적인 변화 및 진보를 근거로 보육과정 운영을 평가한다.

문화적 차이와 발달적 차이 살펴보기

영아의 행동이 문화적 차이로 인해 나타나는 것인지 아니면 발달상의 어떤 특성 때문에 나타나는 것인지 살펴본다. 문화적 차이, 발달적 차이로 인한 가능성을 살펴보기 위해서 여러 교사가 다양한 관점으로 정보를 모으고 해석하는 노력은 중요하다. 영아반은 여러 교사가 함께 같은 영아를 담당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관찰한 내용을 기록하는 과정에서 서로 협력하는 방안을 활용하여 효율적으로 관찰(일화기록, ABC 서술식 사건 표집법, 체크리스트, 평정척도 등)과 정보수집(선별 및 발달검사 결과, 기록 검토 등)을 한 후에 각자의 관점에서 영아의 행동을 해석하며 생각을 나누면, 영아의 행동을 심도 있게 해석할 수 있다.

다 같이 모여 생각을 나눠요



교사들이 모여서 관찰한 내용을 나누고 함께 해석하는 협업이 필요하다. 같은 장면에서 동일한 영아의 행동을 보고도 교사마다 배움 읽기를 하는 관점이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양육자와의 소통으로 얻은 정보도 교사마다 다를 수 있어 함께 공유해야 영아에 대한 정보를 종합하여 다양한 관점으로 배움 읽기와 배움 지원이 일어난다.

양육자와 소통하기

모든 영아의 발달과 행동을 비롯하여 출생 이후의 발달 이력, 문화적 배경, 가정에서 사용하는 언어 등의 주요 사항은 교사가 영아의 양육자와 소통하여 정확하게 알아볼 수 있다. 기관에서 관찰한 영아의 특정 행동이 가정에서도 나타나는지에 대해서도 양육자와 수시로 대화하면서 교사가 확인하고 모든 영아의 행동을 종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영아의 긍정적인 변화 읽기

보육과정을 통해 영아의 발달상에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 알아보아야 한다. 특히, 모든 영아는 발달상의 특성이나 문화적 차이로 인해 발달이 조금씩 진전되므로 교사가 영아의 발달에 대해 세밀하게 관찰하고 자세한 배움 읽기를 선행하여야 발달에서의 긍정적인 변화를 알아차릴 수 있다.

이제는 친구와 즐겁게 놀아요



민우(2세)는 뇌병변장애 진단을 받은 영아이다. 민우는 놀이 중에 다른 사람과 상호작용하거나 의사를 표현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민우가 계속 혼자 노는 모습을 보이자, 교사는 병행놀이 기회를 만들어주려고 다른 영아를 불러 민우 옆에 앉아서 자동차 놀이를 하도록 한다. 하지만 민우는 쳐다보지도 않고 반응도 하지 않고 자기 자동차만 가지고 놀이한다.

교사는 낙담하지 않고 민우의 행동을 관찰하면서 민우에게 또래와의 상호작용을 지원하는 여러 전략을 계속해서 실행한다. 서너 달이 지난 후에, 민우가 옆에 있는 또래와 비슷한 놀잇감을 들고서 또래가 놀이하는 모습을 따라 하면서 같은 방법으로 탐색하며 즐긴다.



습득한 기술의 일반화 지원하기

보육과정 중에 놀이와 여러 경험으로 영아가 발달시킨 행동이나 습득한 기술을 다른 대상에게, 다른 장소에서도 사용하는지 확인한다. 이주배경, 장애, 발달이 느린 영아와 같이 또래보다 발달상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는 새로운 기술을 습득한 상황에서 벗어나면 적용을 어려워하기도 한다. 따라서 보육과정에서 영아가 습득한 기술을 여러 교사, 또래, 부모를 포함한 주변 사람들에게 사용하여 기관 이외에 가정, 지역사회에서도 적용하는 일반화가 일어나도록 지원해야 한다. 영아가 습득한 기술의 일반화가 다양하게 이루어지는가는 보육과정 운영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다.

이주배경 영아가 다른 선생님에게도 인사해요



지호(2세)는 베트남인 어머니와 한국인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난 영아이다. 기관에 처음 적응할 때부터 언어 표현이 없어서 교사는 지호의 표정과 눈빛을 살펴 이해하려고 노력한다. 지호는 담임교사에게 적응하고 “안녕하세요”라고 인사하게 된 이후에도 기관의 영양사나 보건교사 같은 낯선 성인이 다가오면 두려워하며 피하거나 크게 울음을 터뜨린다.

이에 담임교사는 보건교사나 영양사가 지호에게 다가올 때 “안녕하세요.”라고 먼저 인사하게 하고, 지호에게 보건교사

와 영양사를 만날 기회를 자주 만들어주자 점차 익숙해진다. 이제는 보건교사가 투약하러 다가와도 울거나 피하지 않고 “안녕하세요.”라고 인사한다. 영양사가 새로운 반찬을 소개하러 올 때도 쳐다보거나 자연스럽게 인사한다. 가끔 할머니가 늦게 데리러 오시는 날에는 연장반 교사와 또래들에게 “안녕하세요”라고 인사하며 연장반 교실에 들어간다.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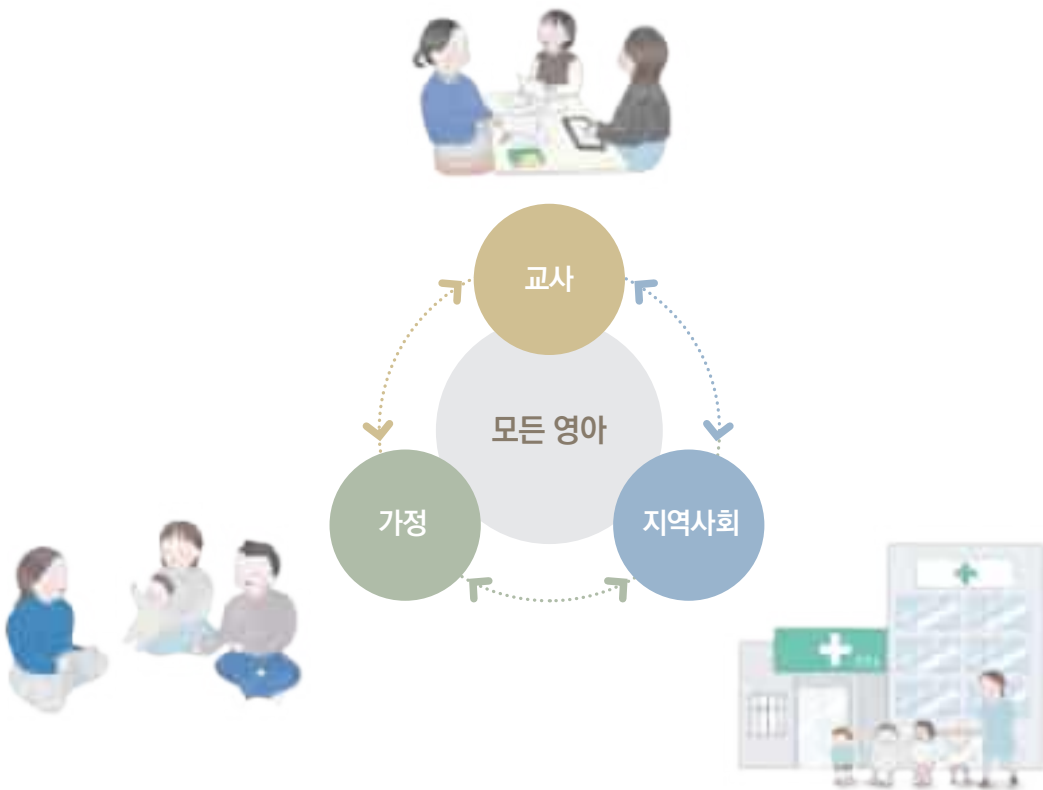
협력 지원



교사, 가정, 지역사회가 함께 협력하여
모든 영아를 지원한다.

‘영아 자체가 하나의 보육과정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영아는 보육과정에서 가장 중심이 된다. 하지만 영아의 발달 특성상 영아를 둘러싼 다양한 주체들의 지원에 따라 영아의 경험이 달라질 수 있다. 영아 중심의 보육과정을 실현하기 위해서 여러 주체의 협력과 참여가 전제되어야 한다. 보육과정을 실행하는 주체로 먼저 교사를 떠올리지만, 교사 외에 가정, 이웃, 지역사회 등도 보육과정을 실행하는 또 다른 주체들이다. 특히 이주배경, 장애, 발달이 느린 영아 등과 같이 특별한 개별적 요구를 가진 영아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기관 내에서 교사 간의 연계, 가정 및 지역사회와의 연계가 갖는 역할이 더 중요하다.

모든 영아는 개별적 특별함 안에서 자신만의 유능함과 함께 무한한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특별한 요구를 가진 모든 영아는 사회문화적 배경이나 능력과 관계없이 동등한 권리를 누리며 영아를 위한 최선의 이익을 보장받아야 한다. 영아를 중심으로 교사, 보호자, 지역사회 등이 상호 존중하고 협력하는 문화 안에서 모든 영아는 개별적 학습자로서 자신의 존재를 있는 그대로 인정받을 수 있다.



개별적 특별함으로 유능하고 무한한 잠재력을 가진
가치 있는 존재로서의 모든 영아

교사 간 협력하기

교사 간 협력을 위해 교사는 먼저 마음을 열고 보육에 대한 가치관, 철학, 특별한 요구를 필요로 하는 영아에 대한 생각 등에 관해 소통할 필요가 있다. 교사들 간의 편안한 소통이 먼저 이루어져야 각 영아의 맥락을 더 풍성하게 이해하고 영아의 성장을 위한 공동의 목표를 더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다. 교사는 협력을 통해 서로의 생각을 자유롭게 교환하면서 모든 영아를 위한 보육과정을 지원해나간다.

서로의 가치관을 이해해요



장애 영아 보육을 하면서 교사의 역할 중에 어려운 부분은 무엇인지에 대해 대화한다. 한 교사는 영아가 갑자기 화를 낼 때 지도하기 어렵다고 한다. 다른 교사는 영아와의 상호작용보다 영아에 대해 보호자와 의견을 나눌 때 공감보다 영아를 위한 지원 방안에 초점을 두는 것에 대해 고민한다. 교사들은 대화를 통해 상호 가치관을 알아가면서 서로 협력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 간다.

이주배경 영아와 상호작용할 때
저는 평등하게 대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네. 그런데 이주배경 영아에 대한
제 편견을 발견할 때가 많아서
특히 편견을 가지지 않으려고 해요.



어떤 편견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이주배경, 장애, 발달이 느린 영아 등을 위한 교사 간 협력에서 자주 보이는 사례는 영아가 했던 놀이나 흥미를 보인 부분, 건강 상태 등에 대해 교사들이 공유하는 것이다. 교사가 영아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면 영아를 이해하거나 이후 놀이를 지원하는 데 도움이 되고, 교사들이 보육계획안을 함께 구성할 수 있다. 교사들은 영아의 놀이나 놀잇감 활용, 의사소통 정도, 급식 상황, 가정에서의 준비물 등도 공유 가능하다. 이 때 교사는 상호 공동지원자의 역할을 수행하는데, 교사 간 적절한 역할 분담과 일관된 역할 수행이 중요하다.

영아에 대한 정보를 공유해요



기본보육반 교사가 연장반 교사에게 오늘 이주배경 영아인 민채(1세)가 오전에 '작은 별' 노래를 들으며 흥미를 보였다고 말한다. 연장반에서 '작은 별' 노래를 틀어주니 민채가 노랫말 중 '반짝 반짝' 부분을 혼자 흥얼거린다. 교사가 흥이 난 민채에게 춤을 추자고 하니 함께 손잡고 춤을 춘다.

교사는 영아마다 가지고 있는 개별적 목표를 위한 지원전략을 간단한 기호 또는 색깔로 표시하여 벽에 붙여둔다. 식사 시간이나 화장실 사용 시, 필요한 지원이나 개별적인 보육 지원 내용을 공유하면 교사들이 일과 안에서 일관적으로 영아를 지원할 수 있는 계획을 준비할 수 있다.

모든 영아에 대한 교사의 인식과 놀이 지원 방법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것은 일상적인 대화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지만 교사 간의 전문적인 대화, 교사 회의나 학습공동체로 확장될 수도 있다. 이러한 소통과 배움은 교사가 더 전문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며 모든 영아의 개별적 요구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도록 돕는다.

영아 가정에 전달할 정보를 공유해요

아영이는 이주배경 1세 영아이다. 연장반에서 물감 놀이를 하다가 바지에 물감이 많이 묻어, 연장반 교사가 여벌 바지로 갈아입히려다 아영이의 여벌 바지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된다. 연장반 선생님이 기본보육반 선생님에게 아영이의 여벌 바지가 필요하다는 것을 보호자에게 전달해달라고 부탁한다. 이주배경 영아의 어머니가 한국어가 아직 서투르기 때문에 “기관으로 여벌 바지를 보내주세요.”라고 적힌 메모를 건네고, 메모를 보여줄 때 번역앱을 사용해 중국어도 보여주어 보호자가 잘 이해하도록 도와준다.

안녕하세요. 오늘 아영이가 물감 놀이를 하면서 바지에 물감이 묻어 바지를 갈아 입었어요. 기관으로 여벌 바지를 보내주세요.

你好，今天雅英玩颜料游戏的时候，裤子沾了颜料，换了裤子。请把多余的裤子送到机关。

교사 간 협력을 전문적 대화나 학습공동체로 확장해요

영아교사와 특수교사가 통합반 영아의 놀이에 대해 의견을 나눈다.

영아가 같은 놀이만
반복해서 걱정되어요.
놀이 사진을 보니
한 놀이만 찍혀 있어요.



장애 영아의 개별적 특성을 고려하면
영아가 놀이를 지속하는 것도
의미가 있어요.

그러면 이대로
계속 지켜만 볼까요?



아니오. 그 의미가 교사가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걸
말하는 건 아니에요.

놀이를 지속하게 하다가,
영아의 흥미와 관심을 활용하여
천천히 확장하는 게 좋아요.

장애 영아의 놀이 확장에 대해
계속 알아보고 싶어요.





이주배경 영아의 한국어를 지원하는 교사의 관심이 그림책을 활용하는 언어 발달을 위한 학습공동체로 발전한다. 교사는 이주배경 영아에게 그림책을 읽어주기만 하다가 학습공동체 안에서 언어 발달 이론을 공부하게 되었고 이론과 그림책을 연계하여 여러 시도를 한다. 학습공동체에 참여하여 그림책 읽기와 놀이를 연계한 사례를 발표하며 교사의 그림책 읽기 역량이 향상될 수 있다.



가정과 연계하기

모든 영아를 위한 지원에서 가정과의 연계가 중요한 이유는 영아 가정의 문화와 양육 방식을 이해하는 것이 영아를 지원하는 출발점이 되기 때문이다. 영아를 이해할 때 영아에 대한 발달적 관점뿐만 아니라 문화적 관점에서 고려하는 것도 필요하다. 장애 영아나 발달이 느린 영아의 경우, 영아 가정에서 바라보는 장애나 발달 지연에 대한 인식, 가정의 가치관, 양육 방식 등을 문화적 관점에 포함할 수 있다. 이주배경 영아의 경우, 영아가 가정에서 겪는 경험에 관심을 가지고 영아가 속한 문화를 이해하고 이를 보육과정과 연계할 수 있다. 또한, 교사가 영아 가족의 정체성, 양육 문화 등을 인정할 때 영아도 자신과 가족을 긍정적으로 인식할 수 있다. 이주배경 영아의 가정과 원활히 소통하기 위해 교사는 번역앱, 통역가, 가족센터 등을 활용할 수 있다. 기관과 가정 간의 연계뿐만 아니라 가정 간의 상호 문화 이해를 위한 지원도 필요하다.

모든 영아를 배려하고 지원하기 위해서 영아 가정의 문화를 편견 없이 수용한다. 영아 가정의 문화를 수용한다는 것은 한국 혹은 주류 문화의 우월성을 말하거나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영아를 포함한 가족의 언어, 행동, 습관, 사고방식 등을 영아와 가정이 속한 문화를 토대로 고려한다는 의미이다. 모든 영아를 위한 지원 방안은 각 영아의 문화에 대한 배려에서 출발하며, 기관에서는 영아 가정 간의 문화나 양육 방식 등을 서로 존중하도록 지원한다.

영아 가정의 문화를 이해해요

이주배경 영아 어머니와 담임 교사가 번역앱을 사용해 대화한다.

씹어서 먹는 음식을
집에서 많이 주지 않았어요.
우리나라에서는 2세까지
분유를 먹이거든요.



아영이가 2세가 되어 가는데
음식을 잘 씹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 새로운 음식에 흥미를
덜 느끼는 것 같아요.
가정에서는 어떤가요?

그래서 그랬군요.
그러면 분유를 먹더라도
이제 씹는 활동이 중요한 시기이니까
고형식에도 관심을 가지면
좋겠어요.

영아 가정의 문화를 상호 이해하도록 도와요



채연이(1세)는 이주배경 영아이다. 외가인 베트남에서 가져온 전통 모자를 쓰고 기관에 오자 영아들이 모자에 관심을 가지고 돌아가며 써 본다. 수빈이가 집에서 '모자'라는 단어를 반복하자 수빈이의 어머니가 궁금해 한다.

"수빈이가 집에서 모자, 모자 하는데 모자로 놀이했나요?"

"네, 채연이네 외가에서 가져온 모자를 같이 써 봤어요. 아이들이 요즘 모자에 관심이 많아요. 채연이 어머니가 베트남 전통 모자를 교실로 보내주었어요."

"네, 채연이 어머니가 베트남분이셨군요."

"수빈이가 요즘 모자에 관심이 많아요. 혹시 주말동안 모자를 빌려드릴까요?"

"네, 그러면 수빈이가 좋아할 것 같아요. 모자로 어떤 놀이를 할지 기대돼요."

어머니는 자녀 반에 이주배경 영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다양한 문화에 관심을 가진다.

가정 연계의 또 다른 측면은 보호자를 지원하는 것이다. 보호자가 영아 지원을 위한 자료나 정보를 요청하거나 기관에서 보호자에게 필요한 지원이 있다고 판단할 때 보호자가 영아를 더 효과적으로 지원하도록 도와줄 수 있다. 기관에서는 가정에 자녀 양육, 발달 등에 대한 자료를 제공하거나 보호자 교육, 교사와의 상담, 전문 기관과의 연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이주배경, 장애, 발달이 느린 영아 등을 위해 기관과 가정이 적극적으로 연계하는 경우, 가정에서 더 전문적이고 세부적으로 영아를 지원할 수 있다.

영아 가정의 보호자를 지원해요

발달이 느린 영아가 배변 훈련을 시작했는데 기관에서보다 가정에서 더 자주 배변 실수를 하는 것을 알아차리고 보호자가 교사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기저귀 떼는 연습을 하는데 시간이 지나도 잘 안되네요.

기관에서는 잘하고 있어요. 가정에서는 어떻게 하나요?

집에서는 화장실에 가고 싶냐고 자주 물어보는데 안 간다고 하다가 실수를 해요. 가정에서 실수 좀 줄이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기관에서는 약 1시간 간격으로 배변을 시도하면서 화장실에 가는 시간을 확인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니 점점 배변 실수가 줄었어요.

가정에서도 화장실에 가는 시간을 확인하면서 시도하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제가 배변 훈련할 때 도움이 되는 자료도 드리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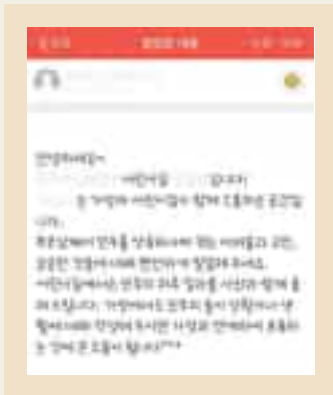
영아 배변 훈련에 필요한 자료 제공하기

배변 시간 표시하기

영아의 가정과 적극적으로 소통해요



이주배경 영아의 가정에 기관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서 기관 오리엔테이션 자료를 번역하여 제공한다. 자료 번역은 가족센터 통번역 서비스, 번역앱 등을 활용하거나 다른 이주배경 가정 보호자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다.



이주배경 영아의 가정에게 기관에서 사용하는 대화노트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서 알려 준다. 대화노트를 보면 영아의 놀이, 휴식, 급식과 같은 일과를 알 수 있으며 사진도 볼 수 있기 때문에 기관에서 영아가 어떻게 지내는지 보호자가 알 수 있음을 설명한다. 대화노트를 통해 보호자가 궁금한 사항이나 알리고 싶은 내용, 건의 사항 등을 기관에 보낼 수 있다고 알려준다.

지역사회와 연계하기

개별적 지원은 모든 영아에게 중요하지만 이주배경, 장애, 발달이 느린 영아 등의 경우에는 더 세밀하고 전문적인 지식과 지원 방안이 필요한 경우가 많다. 기관에서는 영아뿐만 아니라 보호자를 지원하는 경우에도 전문기관과 연계할 수 있다. 지역사회에서 대학이나 기타 교육기관, 육아종합지원센터, 가족센터 등과 같은 기관과 연계하여 개별 영아에게 필요한 맞춤 지원 방법을 알 수 있다. 이 외에도, 장애 영아 통합 보육에 대한 보호자 교육 실시하기, 이주배경 영아의 이중언어 발달 지원에 대해 질의하기, 교사 연수나 보호자 교육에 영아 발달치료 전문가 초빙하기, 영아가 다양성을 경험하는 체험 활동에 참여하기 등을 연계할 수 있다.

장애 영아 통합 보육에 대한 보호자 교육을 실시해요



장애 영아 통합보육에 관한 보호자의 관심과 우려가 많다. 보호자마다 통합 보육에 대한 관점이 다를 수 있지만 편견이나 잘못된 정보를 가진 경우도 있다. 이에 전문가를 초청하여 장애 영아 통합보육에 대한 보호자 교육을 실시한다. 보호자 교육은 장애 영아 보호자뿐만 아니라 교실의 모든 보호자가 장애 영아 통합보육을 더 잘 이해하고 통합보육의 긍정적인 효과를 높이도록 도와준다.

영아의 발달 지연이나 장애가 의심되는 경우, 교사는 전문기관에서 상담이나 검사를 받도록 가정에서 제안할 수 있다. 보호자가 영아에 대해 더 정확한 진단과 전문적인 지원이 필요로 할 때는 육아종합지원센터나 관련 전문기관에서 상담이나 진단을 받을 수 있다.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는 직접 기관을 방문하여 영아를 관찰하고 개입 프로그램을 진행하기도 한다. 이주배경 영아를 위해서 가족센터에서는 한국어 발달을 진단하고 있으며 영아의 전반적인 발달에 대해 보호자와 상담을 한다. 이주배경 영아를 대상으로 추가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달지원센터와 같은 다른 기관과 연계가 가능하다.

영아의 언어 발달에 대해 자세히 알아 보아요



교사가 관찰을 토대로 영아의 발음이 또래에 비해 정확하지 않고 특정 발음을 어려워하는 것을 발견한다. 영아의 발음이 정확하지 않아 또래가 오해하는 경우도 있어 교사는 보호자에게 전문적인 상담을 제안한다.



“민재가 또래와 놀고 싶어 하는 마음이 큼니다. 그런데 발음이 정확하지 않으니 또래랑 소통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요. 제가 관찰한 결과를 함께 보시면, 언어 발달 중에 특히 특정 발음을 힘들어해요. 민재의 언어 발달에 대해 전문기관에서 상담을 받아보시면 민재의 언어 발달 정도, 지원 방법 등에 대해 더 잘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영아는 일상생활에서 자연스럽게 다양성을 경험하고 다름에 대한 포용성을 배운다. 영아는 지역사회에 있는 미술관, 박물관, 가족센터 등을 방문하여 다양한 문화를 경험할 수 있으며 외부기관을 초청하여 다문화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이주배경 영아의 보호자가 기관을 방문하여 영아와 함께 그림책 읽기, 음식 만들기, 전통 놀이 소개 등을 할 수도 있다.

영아가 다양한 문화를 체험해요



영아들이 기관 인근의 가족센터를 방문하여 다른 나라의 동화를 인형극으로 감상한다. 인형극을 보면서 다른 나라의 이야기에 관심을 가지고 옷이나 음악, 장신구, 음식 등을 자연스럽게 경험한다. 인형극을 관람한 후, 여러 나라의 옷을 입어 보면서 다양한 문화를 체험해 본다. 교사는 가족센터에서 찍은 사진을 교실에 비치하여 이야기 나누기나 놀이를 위한 자료로 활용한다.

4



모든 영아를 위한 보육과정 지원사례

1. 좋아하는 놀이를 친구와 같이 해요
2. 영아가 편안한 방식으로 소통해요
3. 영아 가정의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해요
4. 영아를 지원하기 위해 가정과 연계해요



1

좋아하는 놀이를 친구와 같이 해요



교사는 모든 영아의 경험에서
놀이를 인식하고 배움을 발견하도록 지원한다.

“리아는 그림책 책장 넘기는 것을 가장 좋아해요.”

리아는 2세 영아로 이주배경 가정에서 자라고 있으며, 유전성 희귀질환으로 인해 또래보다 발달이 느린 편이다.

영아의 경험에 귀 기울이기

리아는 혼자 그림책 보기를 반복한다. 주변에서 놀이하는 친구에게 관심을 보이지 않고 교실 구석에 앉아서 그림책을 여러 날 계속해서 본다. 교사가 다가가 그림책을 읽어주거나 그림에 대해 이야기하면 리아는 다른 곳을 보거나 자리에서 일어난다.



교사의 고민

‘리아는 왜 그림책만 보고 있는 걸까? 그림책이 재밌을까? 좀 더 가까이서 들여다볼까?’

영아의 경험에 귀 기울이기

등원한 리아가 여느 때처럼 책장에서 그림책을 꺼낸다. 리아가 교실 바닥에 앉아서 그림책을 무릎 위에 올려두고서 그림책 책장을 넘기는 행동을 반복한다. 리아는 책장을 한 장씩 넘기며 웃기도 하고 한참 동안 계속해서 책장을 넘긴다.



교사의 지원

교사는 리아가 그림책을 보는 것이 아니라 책장 넘기는 느낌을 재미있어하고 즐긴다는 사실을 발견한다.

‘리아는 책장 넘기기를 놀이처럼 재미있어하는 거구나! 책장 넘기기를 더 재미난 놀이로 만들어보자!’

리아에게 작은 책, 큰 책, 책장이 두꺼운 하드커버 그림책, 얇은 종이로 된 책, 형겅으로 만든 책, 비닐 책 등 다양한 질감을 지닌 책을 여러 권 준다. 교사도 리아 옆에 앉아 리아를 따라서 책장을 계속해서 넘기며 책장 넘기는 느낌을 “뽀뽀해”, “부드러워”라고 말한다.

영아의 경험에 귀 기울이기

리아와 교사가 그림책 책장 넘기기를 계속하자 다른 또래들도 하나둘 책장 넘기기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다. 또래들은 리아 옆으로 다가와 그림책을 만져보기도 하고 책장을 넘기는 리아를 쳐다본다. 리아는 또래들을 쳐다보지 않은 채, 그림책 책장만 넘긴다.



교사의 지원

교사는 리아의 그림책 책장 넘기기 놀이에 관심을 보이는 주변 영아들의 탐색과 흥미를 알아차린다.

'다른 영아들도 그림책 책장 넘기기에 관심을 보이는구나! 다 같이 책장 넘기기 놀이하면서 영아들 사이에서 상호작용이 일어나게 해보자!'

교사는 교실 한쪽에 리아와 또래들이 옹기종기 모여서 책장을 넘기며 놀이하도록 한다. 책장 넘기기 놀이가 지속되도록 교사는 영아들을 격려하기도 하고 느낌을 말로 표현하기도 한다.

영아의 배움

또래들은 리아가 책장을 넘기는 것을 보다가 재미있어 보이는 그림이 나오면 같이 보면서 "고양이야", "예쁘다"라고 말한다. 그러면 리아도 잠시 멈추고 그림을 본다. 한참을 놀다가, 다른 또래가 책장을 넘기며 그림책을 유심히 바라보자 리아도 따라서 그림을 쳐다본다. 잠시 후 리아가 그림책 책장을 넘기다가 고양이 그림이 나오자 고양이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옆에 있는 또래들을 힐끗 쳐다본다.



모든 영아를 위한 보육과정 지원

영아가 흥미와 관심을 보이는 작은 행동 이해하기

- 발달이 또래보다 느린 영아의 경우 흥미와 관심을 작은 행동으로 표현하기도 하므로 세밀하게 관찰하여 영아의 흥미와 관심을 포착하기

- ▶ 반복하기: 같은 행동을 계속한다. 한 가지 놀이를 여러 날 동안 한다.
- ▶ 보기: 슬쩍 쳐다본다. 하던 행동을 멈추고 본다. 고개 돌려서 본다.
- ▶ 다가가기: 가까이 다가간다. 다가가는 듯 스쳐 간다.

또래와의 상호작용 지원하기

- 또래와의 상호작용을 시작하고 발전해 나가도록 지원하기
- ▶ 환경 구성하기: 같은 놀잇감을 여러 개 비치한다. 가까이에서 놀 수 있도록 공간을 만든다.
- ▶ 놀이 지원하기: 영아들이 공통적으로 즐길 수 있는 놀이 요소를 추가한다. 교사가 같이 놀면서 놀이에 대한 영아들의 관심과 흥미가 유지되도록 언어적 지원(간단한 질문이나 칭찬) 및 정서적 지원(미소, 격려)을 한다.
- ▶ 상호작용 기회 제공하기: 또래에게 놀잇감을 나누어주게 하여 영아들 간의 교환과 상호작용을 촉진한다. 하이파이브나 손잡기 등 긍정적인 신체적 접촉을 유도한다. 서로 도와주거나 차례를 기다리는 경험을 하도록 지원한다.



2

영아가 편안한 방식으로 소통해요



모든 영아를 지원하기 위해 개별 영아가 일상에서 더 자주 사용하는 언어나 이해하기 쉬운 방식을 활용하여 소통한다.

“민지에게 편안한 베트남어와 사진을 사용해요.”

민지는 2세인 이주배경 영아이다. 민지는 가정에서 어머니의 모어인 베트남어로 주로 소통하기 때문에 기관에서 한국어로 말하지 않는다. 민지에게 한국어로 말하면 거의 반응하지 않는다.

영아의 경험에 귀 기울이기

교사가 등원하는 민지에게 “민지야, 안녕!”이라고 인사해도 민지는 반응하지 않는다.



교사의 고민

아침마다 듣는 인사말이라서 이해할 것 같기도 한데 민지는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는다. 안녕이란 단어는 알 것 같은데 한국어로 소통하는 것이 아직 어색한 걸까? 교실에 가서 베트남어로 인사하면 민지가 더 편안하게 느낄까? 민지 어머니가 가정에서는 민지를 ‘또또’라고 부른다고 했으니, 가정에서 부르는 이름으로 불러보면 더 친숙하게 느낄 수도 있을 것 같다.

교사의 지원

교사가 민지에게 손을 흔들며 말한다.

“또또가 오늘도 누리반에 왔네요.”

교사가 자신의 애칭을 불러주자 선생님을 쳐다본다.

“선생님이 민지에게 아침 인사를 해요. 신 짜오.”

민지가 교사를 바라보며 살짝 웃는다.



영아의 경험에 귀 기울이기

교사가 '또또'라는 친숙한 이름을 불러주자 평소에는 반응을 하지 않던 민지가 교사를 쳐다본다. 안녕이라는 말 대신에 "신 짜오."라고 인사를 하니 살짝 웃기까지 한다. 민지가 자신의 애칭을 불러주고 베트남어로 인사하는 걸 더 편안하게 느끼는 것으로 보인다.

교사의 지원

교사가 민지 어깨를 살짝 토닥이며 "신 짜오."라고 한 번 더 인사한다.

영아의 배움

민지는 교사가 자신의 애칭을 말해주고 자신에게 익숙한 베트남어로 인사를 해주니 소통하는 데 더 관심을 가지게 된다. 교사가 자신에게 편안한 방식으로 다가오자 민지는 자신이 기관에서 자신이 존중받고 있음을 느끼고 반에서 편안함을 느낀다.

교사의 지원

교사는 민지가 가정에서 사용하는 간단한 베트남어를 사용하면서 한국어를 자연스럽게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함께 제공한다.

영아의 경험에 귀 기울이기

다음 날, 민지가 블록놀이를 하면서 기차길을 만들고 기차놀이를 한다. 놀이를 마무리할 시간에 민지에게 "정리할 시간이예요."라고 여러 번 말을 했지만 민지는 계속 놀이를 한다.



교사의 고민

민지에게 간단한 인사는 베트남어로 하였는데 민지가 기관에서 일상 생활을 잘 보내기 위해 필요한 소통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생각한다. 민지가 일상 생활을 잘 이해하도록 어떻게 도와줄까?

교사의 지원

교사는 놀잇감을 정리하는 민지의 사진을 보여주면서
 “민지야, 이제 곧 정리할 시간이야.”라고 말한다.
 민지가 사진을 보고 정리하기 시작한다.
 “(박수를 치며) 우리 민지, 정리도 잘 하네.”

영아의 배움

교사는 자신이 정리하고 있는 사진을 보면서 정리해야 하는 시간임을 이해한다. 사진을 보면서 하루 일과 중에 놀이하고 놀이를 정리하는 시간이 있음을 더 이해하기 쉬운 방식으로 경험한다.



모든 영아를 위한 보육과정 지원

영아에게 편안하고 이해하기 쉬운 방식으로 소통하기

- 영아가 편안하게 느끼는 언어로 다가가기
 - 간단한 인사말이나 일상 생활에 필요한 말(예: 맛있게 먹자, 화장실 가자 등)을 할 때, 영아가 편안하게 느끼는 언어로 소통한다.
 - 영아의 소통 방식을 존중하여 자신의 존재를 긍정적으로 느끼도록 한다.
- 음성 언어 외에 이해하기 쉬운 다양한 방법 찾기
 - 영아가 일과를 더 쉽게 이해하도록 일과를 경험하는 영아의 모습을 사진 카드로 만들어 필요할 때 보여준다.
 - 영아와 소통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보호자에게 도움을 구하여 영아와 소통한다.

영아와 소통하기 위해 비언어적 상호작용과 놀이 활용하기

- 의사소통을 위해 비언어적 상호작용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 교사의 몸짓, 손짓, 표정 등 비언어적 상호작용으로 영아와 소통하고 격려한다.
- 영아가 놀이 상황에서 한국어를 자연스럽게 경험하게 하기
 - 놀이 상황에서 간단한 단어를 반복하여 경험하도록 한다.
 - 영아가 놀이하는 모습을 교사가 언어로 표현하여 영아가 듣도록 한다.



3

영아 가정의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해요



교사는 영아와 영아 가정의 문화를
편견 없이 수용하고 존중하여 보육과정 실행에 반영한다.

“사라의 식습관을 인정하고 지원해요.”

사라는 이슬람 가정의 2세 영아이다. 또래들과 사이좋게 지내며 기관에서 보내는 일과의 흐름에도 잘 적응하고 있는데 급식을 시작할 때 시간이 오래 걸린다.

영아의 경험에 귀 기울이기

점심 식사 배식을 시작하자 사라가 자기 자리에서 식사를 기다린다. 식판에 밥과 국, 반찬이 있는데 이를 물끄러미 쳐다보고 선뜻 식사를 시작하지 않는다.

교사의 고민

사라는 기관에서 잘 적응하여 지내는데 유독 급식 먹는 것을 즐거워하지 않는다. 사라가 가정에서는 식사를 잘 한다고 들었는데 기관에서 급식 먹는 것을 어려워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한국 음식이라서 먹기 싫어하는 것일까?

교사의 지원

사라가 급식 시간에 어려움이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사라 어머니와 상담을 한다. 사라가 가정에서는 식사 시간에 어떠한지, 좋아하는 음식이 무엇인지 알아본다.

“어머니, 사라가 어떤 음식을 좋아하나요?”

“사라는 음식을 가리지 않고 잘 먹어요.”

“그런데 급식을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아요. 혹시 사라가 한국 음식을 좋아하지 않아서 그런가요?”

“아니요, 제 생각에는 식판 때문인 것 같아요. 사라가 집에서 밥을 먹을 때 큰 그릇에 담긴 음식을 같이 먹을 때가 많고 접시 하나에 여러 가지 음식을 모두 담아서 먹거든요.”

“아! 그래요? 가정에서 사용하는 접시와 비슷한 접시를 기관에서 준비할게요.”

사라가 집에서 사용하는 접시와 유사한 접시를 준비하여 급식에 활용한다. 먼저 식판에 음식을 덜고 난 다음, 접시에 음식을 담아준다. 식판에 담았던 음식을 접시로 옮겨 주자, 사라가 포크로 음식을 먹기 시작한다.



“접시에다 밥 먹으니까 더 맛있어요?”

(사라가 고개를 끄덕인다.)

“이 접시에는 맛있는 국을 담을 수가 없어요. 나중에 사라가 식판에 먹고 싶으면 말해요. 식판으로 먹어도 맛있어요.”

영아의 배움

사라는 급식 시간에 가정에서 사용하는 접시와 유사한 접시를 사용하면 서 급식을 편안하게 경험하고 음식에도 관심을 더 가진다.



영아의 경험에 귀 기울이기

사라가 식판이 아닌 접시를 이용하자, 다른 영아들도 접시에 관심을 가진다. 다른 영아들이 왜 사라가 접시에 음식을 담는지 물어본다.

교사의 고민

사라가 식판을 사용하지 않는 이유를 영아들이 궁금해 하는데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

교사의 지원

“사라는 집에서 이런 큰 접시에 밥을 먹어요. 우리 반에서도 큰 접시에 담아서 먹으면 더 잘 먹고 즐겁게 먹을 수 있다고 했어요. 다른 친구들도 이런 접시에 먹어보고 싶나요?”

영아가 원하는 경우, 접시를 추가로 준비하여 다른 영아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영아의 배움

사라가 식판이 아닌 접시에 음식을 먹는 것을 보고 다른 영아들도 급식 시간에 접시를 사용한다. 접시를 사용하면서 일과를 즐겁게 느끼고 사라에게 더 관심을 가진다.

모든 영아를 위한 보육과정 지원

모든 영아의 가정 문화 존중하기

- 영아의 가정마다 다양한 문화를 지님을 알고 존중하기

 - ▶ 영아가 기관의 문화에 적응하도록 무조건 돕는 것보다 영아의 문화를 수용하여 문화적으로 반응적인 지원을 한다.
 - ▶ 같은 문화권의 가정인 경우에도 다양성을 인식하고 한 문화에 대해 과잉일반화하지 않도록 유의한다.

- 영아를 이해하기 위해 영아 가정의 문화에 관심 가지기

 - ▶ 영아 가정의 문화를 알기 위해서 보호자와 적극적으로 소통한다.
 “가정에서 영아와 함께 어떤 놀이를 즐겨 하나요?”
 “영아를 양육하면서 더 신경 쓰이는 부분이 있나요?”
 - ▶ 영아 가정 간에 문화를 상호 이해하도록 도와준다.

- 다양한 문화에 대한 영아의 호기심이나 질문을 자연스럽게 수용하기

 - ▶ 다른 문화에 대한 영아의 질문은 다양성을 경험하는 좋은 출발점으로 영아에게 있는 그대로 설명한다.
 - ▶ 영아가 다름이나 다양성을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경험하도록 한다.



4

영아를 지원하기 위해 가정과 연계해요



보호자와 필요한 정보를 공유하고
가정 환경을 지원한다.

“영아를 더 이해하기 위해 부모와 상담해요.”

선재는 1세 영아로 자신의 의사를 스스로 언어로 표현하지 않고 울음으로 대신하는 경우가 많으며, 간단한 단어를 활용하여 또래와 상호작용하는 것을 어려워한다. 교사는 선재를 더 잘 이해하고 지원하기 위해 선재 어머니와 상담을 준비한다.

영아의 경험에 귀 기울이기

선재가 음식 모양 틀을 클레이에 찍어보는 놀이를 한다. 다른 영아들이 관심을 가지며 다가와 “나도 같이 하자.”라고 이야기를 해도 선재는 대답하지 않는다. 한 영아가 선재의 음식 모양 틀 중에 포도 모양 틀을 가지고 자리를 떠나자, 떠난 방향을 바라보며 소리 내어 울기 시작한다.

교사의 고민

선재는 또래나 교사에게 언어로 표현을 거의 하지 않는다. 자신이 좋아하는 놀이를 즐겨하지만 또래가 말을 걸어도 대답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선재를 더 잘 지원하기 위해서 선재의 언어 발달 상태를 더 정확하게 알고 싶지만 언어 발달 지연 여부나 상태를 진단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교사의 지원

가정에서의 영아 모습 알아보기

교사가 선재 어머니와 상담을 하며 가정에서 선재가 어떻게 지내는지 알아본다.

“어머니, 선재가 또래와 갈등이 생기면 언어로 표현하지 않고 울음으로 표현할 때가 많아요. 가정에서는 어떤가요?”

“집에서도 잘 우는 편이에요.”

부모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 제공하기

“혹시 선재가 언어로 표현하지 않고 울음으로 표현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어머니 생각은 어떠세요?”

“제 생각에 선재가 표현하기 전에 제가 다 해주는 편이라 언어로 더 표현하지 않는 것 같아요.”

가정에서의 지원 방안과 영아에 대한 정보 공유하기

“그러면 이제 미리 다 해주시지 말고 선재가 스스로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더 많이 주세요. 기관에서도 선재의 놀이 모습이나 언어 상호작용을 관찰하고 있어요. 선재를 관찰한 내용을 한 번 보시겠어요?”

영아의 경험에 귀 기울이기

영아들이 바깥 산책을 다녀와서 손을 씻으려고 화장실 앞에서 기다린다. 뒤따라 들어온 선재가 먼저 들어가려고 하자 기다리던 영아들이 “내가 먼저야.”라고 말을 하지만 선재가 먼저 들어간다. 기다리던 다른 영아가 선재를 밀치자, 선재가 울음을 터트린다.

교사의 고민

기관에서 선재가 스스로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도록 기회를 주고, 교사가 모델을 보이지만 여전히 표현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선재가 또래의 말을 얼마나 이해하는지, 가정에서 말로 표현하는 데 긍정적인 변화가 있는지를 알아야 구체적인 지원 방향을 계획할 수 있을 것 같다.

교사의 지원

먼저 부모의 관점 수용하기

어머니와 다시 상담을 한다.

“어머니는 선재의 말에 대해서 어떤 변화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특히 더 이야기 나누고 싶은 부분이 있나요?”

“네. 말로 표현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제가 요즘에는 대신 표현해 주려고 하지 않는데도 큰 변화는 없어요.”



관찰에 근거한 객관적 내용 공유하기

“네, 기관에서도 꾸준히 관찰하고 있는데 표현을 안 하니 또래와 같등이 생기기도 해요. 선재가 또래의 말을 듣고 이해하는 데도 어려움을 보일 때가 있어요. 오늘 화장실 앞에서 또래들이 기다리는데 선재가 먼저 들어갔어요. 기다리던 또래가 “기다려!”라고 여러 번 말을 했는데도 선재가 화장실에 들어가자 다른 영아가 선재를 밀쳤고 그래서 선재가 울었어요.”

기관에서의 지원 방법 알리고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과 연계하기

“선재가 또래의 말을 이해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가정에서도 제가 말을 해도 선재가 알아차리지 못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어떻게 하면 가정에서 선재가 언어로 표현하도록 도울 수 있을까요?”

“기관에서는 선재가 자신의 감정을 인식할 수 있도록 얼굴 그림을 보면서 여러 감정을 말로 표현해보고 있어요. 놀이에서 잘 사용하는 ‘이건 내 거야, 같이 놀자’ 등 필요한 문장도 반복해서 알려주고 있어요. 가정에서도 이렇게 자신을 표현하는 연습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선재의 발달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전문기관에서 상담하고 조언을 받는 것도 제안해요. 전문적인 지원을 받으면 선재에게 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요.”



모든 영아를 위한 보육과정 지원

가정 연계를 통해 영아를 더 잘 이해하기

- 보호자와 상담하기 전에 친밀감 형성하기
 - ▶ 보호자와 소통하고 협력하기 위해 먼저 상호 신뢰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한다.
 - ▶ 영아 관찰 내용이나 지원 방법을 보호자와 꾸준히 공유한다.
 - ▶ 영아에 대한 보호자의 관점을 존중한다.
- 관찰 결과를 기반으로 가정과 소통하기
 - ▶ 보호자와 상담 시, 교사의 주관적 감정에 의한 판단이 아니라 누적된 관찰 기록이나 체크리스트 등 자료를 기반으로 한다.
 - ▶ 영아의 특성으로 인해 교사나 또래가 힘들다는 메시지가 아닌 영아의 발달 상황, 놀이 모습, 또래와의 상호작용 모습을 전달한다.

가정의 추가 지원 격려하기

- 보호자가 추후 전문기관 상담 및 방문을 원하는 경우 추가 지원 방법 알려주기
 - ▶ 기관에서 영아를 지원하는 방법 및 영아 발달의 변화를 공유하고, 가정에서의 영아 지원 방안을 알려준다.
 - ▶ 보호자가 원하는 경우, 기관을 방문하여 보호자가 자녀를 관찰할 수도 있다.



부록

도움 받을 수 있어요: Q&A와 정보

1. 이럴 땐 이렇게: 다양한 영아를 지원하는 방법
2. 교사의 고민 묻고 답하기
3. 지원·정책 서비스

1

이럴 땐 이렇게: 다양한 영아를 지원하는 방법

시각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영아가 있다면?

어두우면 잘 보지 못하거나
밝으면 눈부심을
더 많이 느낄 수 있어요

놀이가 시작되어도
주변 상황을 알기 어려워
누구와 어떻게 놀지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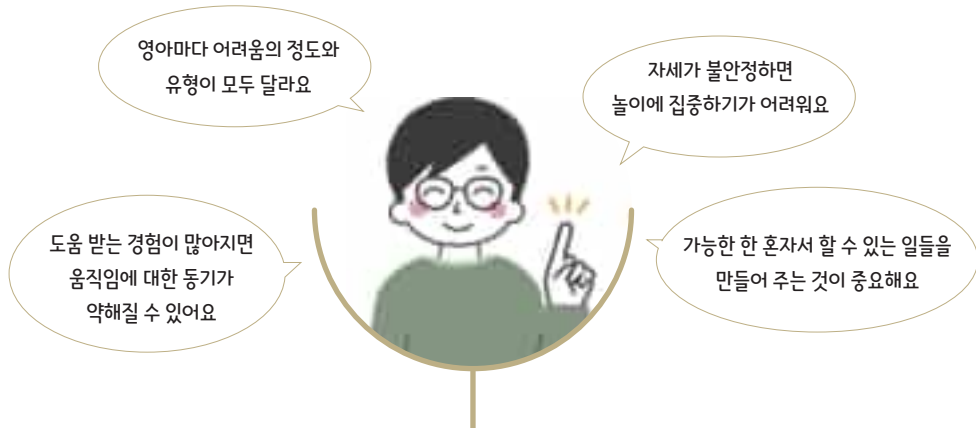
몸을 움직이며 노는 놀이를
무서워 할 수 있어요

대비가 분명한 색깔, 다양한 촉감,
소리가 나는 놀잇감이 필요해요

이렇게 지원할 수 있어요

- 저시력 영아는 색 대비가 분명하고 큰 물건을 볼 수 있으며 맹인 영아도 사물의 형태를 구분하거나 빛을 인식할 수 있는 정도의 시력을 가질 수 있으므로 양육자 상담을 통해 영아의 시력 정도를 정확히 알아둔다.
- 교실에 촉각이나 청각을 활용하는 놀잇감이나 자료를 준비한다(예: 색종이를 대체할 수 있는 다양한 질감의 종이나 천, 소리 나는 모빌, 방울이 들어있는 공, 종류별로 다른 재질의 스티커를 붙인 퍼즐 조각 등).
- 영아가 다치지 않도록 가구나 주변 환경을 수시로 점검하여 안전하게 움직이는 경험을 하게 한다.
- 교실의 조도가 적절한지 확인하고 햇빛이 너무 강한 경우 커튼이나 블라인드를 내려준다.
- 교실의 구조나 사물의 위치에 익숙해지도록 학기 초에는 영아의 손을 잡고 반복적으로 공간을 함께 탐색한다.
- 저시력 영아의 경우 크고 대비가 분명한 놀잇감이나 자료를 활용한다.
- 놀잇감 위치나 가구 배치를 변경하지 않는 것이 좋지만 만약 변경이 필요하다면 바뀐 위치를 알려준다.
- 놀이를 시작할 때 영아가 놀이를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는지 살펴본다.

운동 발달이 느리거나 움직임에 제약이 있는 영아가 있다면?



이렇게 지원할 수 있어요

- 필요한 지원(예: 자세 유지, 식사, 일상생활, 이동 등)에 대해 양육자와 의논하면서 영아에게 가능한 한 혼자서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 독립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을 가족과 공유한다.
- 놀이 방법이나 놀잇감을 수정해서 다양한 놀이에 참여할 수 있게 지원한다(예: 조작하거나 고정하기 쉬운 자석 블록 비치하기, 딸랑이에 손목 끈 부착하기).
- 양육자와 의논하여 필요하다면 자세 유지 보조기구를 활용하여 영아가 안정적으로 환경을 탐색할 수 있게 한다.
- 영아가 가능한 한 독립적으로 움직이거나 탐색할 수 있는 환경인지 수시로 점검한다.
- 영아가 놀잇감을 조작하기 쉬운 자세로 앉도록 지원하며, 스스로 손을 뻗어 만져 볼 수 있도록 다양하고 흥미로운 자료를 제공한다.



운동발달이 느린 영아

언어나 문화적 배경이 다른 영아가 있다면?

언어가 달라 의사소통 발달에 어려움을 경험할 수 있어요

언어의 차이로 적절한 상호작용을 경험하지 못하면 관계 형성이 어려울 수 있어요

문화가 달라 혼란스럽거나 위축될 수 있어요



소통이 어려운 경우 자주 짜증을 내거나 작은 일에도 심하게 화를 내는 등 도전적인 행동을 보일 수도 있어요

이렇게 지원할 수 있어요

- 귀 기울이기, 존중하기, 지원하기 등과 같은 반응적 지원을 제공한다.
- 영아와 따뜻하고 적극적으로 소통하기 위해 다양한 언어와 소통 방법을 활용한다.
- 영아가 가족이 사용하는 모어를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도록 존중한다.
- 교실이 의사소통 발달의 장이 되어 또래와 즐거운 상호작용이 일어나고 관계가 형성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영아에게 공감하며 영아의 감정을 읽어주는 등 정서적 측면에 관심을 가진다.
- 영아가 경험하는 의사소통 및 상호작용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공감하기 위해 노력한다.
- 영아가 성공적인 상호작용을 경험할 수 있도록 영아가 사용하는 모어를 활용하거나 베이비 사인과 같은 몸짓, 그림, 사진 등을 활용하여 소통한다.

또래와 놀지 못해 지원이 필요한 영아가 있다면?

흥미와 관심이 제한적이어서
친구들이 즐기는 놀이에
관심이 없을 수 있어요

영아와 또래가 서로를
놀이상대로 생각하지 않을 수 있어요

놀이에 몰두하는 시간이 짧아서
돌아다니는 시간이 길 수 있어요

언어가 다른 친구와의 상호작용을
불편하게 느낄 수 있어요



이렇게 지원할 수 있어요

- 영아기임을 고려해도 유난히 또래에게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면 함께 놀아보도록 지원이 필요할 수 있다.
- 흥미와 관심이 제한적이어서 또래의 놀이에 관심이 없는 것 같다면 영아가 즐기는 놀이의 재미가 무엇인지 살펴보고 유사한 느낌을 줄 수 있는 다른 놀잇감을 찾아 지원한다.
- 영아 곁에서 평행놀이를 하는 등 영아의 놀이를 방해하지 않는 방식으로 놀이를 지원한다.
- 정형화된 놀잇감 외에 다양한 자료를 놀잇감으로 활용한다(예: 빛 등의 시각적 감각을 좋아하는 영아의 경우 라이트박스나 조명을 이용한 그림자놀이 등을 활용, 모래·밀가루·마카로니·국수·천·구슬과 다양한 자연물 등을 촉각 자료나 청각 자료로 활용).
- 영아가 특정 감각을 싫어하는 경우에 억지로 하게 하지 않으며 대안적인 방법을 시도해 본다(예: 아이 클레이를 싫어하는 경우 막대나 도구로 탐색하게 하기).
- 혼자 노는 영아가 좋아하는 놀잇감이나 놀이를 활용하여 다른 영아들의 놀이를 지원하고, 이를 통해 다른 영아들과 가까운 거리에서 비슷한 놀잇감을 가지고 놀도록 지원한다.
- 놀이하는 동안 영아들 간의 물리적 거리를 좁힐 수 있도록 공간 배치를 조정하거나 영아들이 좋아할 만한 아늑한 놀이 공간을 만들어본다(예: 영아들이 같이 들어갈 수 있는 큰 박스나 큰 천 활용하기).
- 다 함께 노는 즐거운 경험을 할 수 있도록 교사가 적극적인 놀이 참여자가 되어 놀이를 이끌어본다.

또래와 상호작용하기 어려운 영아가 있다면?

말을 통한 의사소통이 어렵거나
사용하는 언어가 달라
상호작용이 어려울 수 있어요

친구를 함께 노는 대상으로
생각하지 못할 수 있어요

친구와 함께 노는 방법을 몰라서
어려움을 경험할 수 있어요



시각 또는 운동기능에서의
어려움으로 친구와 함께
놀이 어려울 수 있어요

이렇게 지원할 수 있어요

- 그림, 사진, 손짓 등 다양한 방법으로 소통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영아에게 익숙하거나 영아가 좋아하는 놀이에 친구를 초대할 수 있다(예: 영아가 가정에서 하는 놀이를 친구와 함께 해보기).
- 놀잇감 없이 친구와 함께 노는 놀이를 해 볼 수 있다(예: 우리집에 왜 왔니, 숨바꼭질, 대문놀이 등).
- 영아끼리 재미있고 따뜻한 신체적 접촉이 있는 상호작용을 해 보도록 제안한다.
- 영아가 또래의 놀이를 관찰하고 함께 놀 자연스러운 기회를 포착할 수 있도록 또래 가까이에서 비슷한 놀잇감을 가지고 놀 수 있도록 환경을 구성한다.
- 영아가 시각적 어려움이나 신체적 어려움으로 인해 상호작용의 기회가 제한되지 않도록 또래 상호작용에 초점을 두어 배움을 읽고 지원한다.

영아 수준에서 장애이해교육이나 다양성 존중 교육이 필요하다면?

영아는 아직 차이점에 대한
편견이 거의 없어요



영아들은 교사가 하는 말이나
행동을 보고 따라할 수 있어요

지원을 위해 고려할 점

- 영아기에는 발달 특성상 다른 점을 부각하는 것보다 다양한 친구들 간에 서로 비슷한 점(예: 옷 색깔이 비슷한 친구 등)을 인식하도록 해서 유대감을 갖도록 하는 것이 좋다.
- 영아기에는 '장애'나 '다양성'을 인지적으로 이해하는 것보다 함께 즐거운 놀이를 하는 것이 다양성 존중에 더 적절하다.
- 교사가 특정 영아를 자주 훈육하거나 지원할 경우 또래도 그 영아에게 교사처럼 대하는 행동을 보일 수 있으므로 주의한다.
- 영아의 말과 행동에 귀 기울이고 존중하는 교사의 태도는 다양한 친구를 포용하는 문화를 만드는 데도 도움이 된다.

장애 영아에 대한 개별화교육을 위해 관찰을 해야 한다면?

장애 영아의 경우
개별화가족지원계획(IFSP)을
세우는 것이 좋아요



영아에 대한
배움 읽기와 발달영역에 대한
관찰을 함께 할 수 있어요

지원을 위해 고려할 점

- 특수교육을 받는 장애 영아의 경우 개별화가족지원계획(IFSP)을 통해 영아와 가족을 지원하는 것이 권장된다.
- 개별화가족지원계획에는 가족에 대한 지원계획 외에도 영아에 대한 개별 목표도 포함되며 이러한 개별 목표는 대소근육운동, 인지, 의사소통, 사회-정서, 적응행동의 5개 발달영역으로 나누어 작성해야 한다.
- 장애 영아의 개별 목표 선정과 평가를 위한 관찰은 영아에 대한 배움 읽기와 함께 실시할 수 있다.

표준보육과정 5개 영역과 5개 발달영역을 모두 활용한 배움 읽기 사례

교사의 배움 읽기 기록

오늘은 민지가 은우에게 캐스터네츠를 가져와서 “나랑 같이 하자.”라며 은우에게 다가왔다. 민지는 은우의 팔을 잡고 손으로 캐스터네츠를 칠 수 있도록 도왔다. 은우는 민지의 말에 고개를 살짝 돌리며 귀를 기울이는 듯 보였고(표준보육과정: 의사소통) 캐스터네츠 쪽으로 손을 뻗으면서 같이 하자는 민지의 말에 동의를 표현하였다(발달영역: 의사소통). 이 과정에서 은우는 민지의 행동에 관심을 가지며 함께 캐스터네츠를 쳐다보았고(표준보육과정: 사회관계) 이런 행동은 같이 놀자는 민지의 시작행동에 반응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었다(발달영역: 사회-정서 발달).

은우는 교사와 함께 캐스터네츠를 만져보면서 동그란 모양을 탐색하기도 하고 캐스터네츠를 손으로 치면서 소리를 들어보기도 하였다(표준보육과정: 자연탐구), 또 주먹을 펴고 손을 뻗어 두드리는 시도를 통해(표준보육과정: 신체운동·건강) 스스로 손을 뻗는 대근육운동 기술과 악기를 쳐다보면서 치는 눈과 손의 협응을 보여주기도 하였다(발달영역: 대소근육운동). 은우는 민지와 함께 노래에 맞춰 악기를 치면서 리듬을 느껴보기도 하였다(표준보육과정: 예술경험).

사회관계

또래에게 관심을 가지고 함께 논다.

사회-정서 발달

또래의 시작행동에 반응한다.

자연탐구

악기의 동그란 모양과 소리를 감각으로 탐색한다.

대소근육운동

스스로 손을 뻗는다.
악기를 쳐다보며 친다(눈-손 협응).



의사소통

또래의 “나랑 같이 하자.”하는 말에 주의를 기울여 듣는다.

의사소통

“나랑 같이 하자.”라는 또래의 말에 손을 뻗어 동의를 표현한다.

예술경험

친구와 함께 익숙한 노래의 리듬을 표현한다.

신체운동건강

친구의 도움으로 소근육을 조절하여 악기를 두드린다.

연두색: 표준보육과정 5개 영역의 배움 읽기 하늘색: 5개 발달영역의 배움 읽기

2

교사의 고민 묻고 답하기

장애아통합기관의 장애위험 영아 지원

Q

“통합기관 장애위험 영아 지원에서
개별 지원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A

통합기관에서 장애위험 영아를 지원하는 과정에서 개별 지원의 범위를 정하려면 우선 영아의 상태를 명확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즉, 영아가 장애 진단을 받고 특수교육대상자로 등록된 상태인지, 아니면 부모나 교사의 관찰에 의해 발달 지연이나 장애 가능성이 의심되는 상태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러한 구분은 이후 지원의 방향성과 범위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장애 진단을 받고 특수교육대상자로 등록된 경우에는 관련 법과 제도에 따라 특수교육지원센터와 협력하여 지원 범위와 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합니다. 반면, 아직 진단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라면 우선 일반적인 반응적 지원을 제공하며 영아의 발달 상황을 세심히 관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먼저, 일반적인 반응적 지원을 통해 영아가 또래와 함께 활동하며 자연스럽게 발달을 촉진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합니다. 예를 들어, 놀이 시간이나 활동 내용을 조정하거나 교사의 상호작용을 늘리는 등 영아의 필요에 따라 세심하게 대응합니다. 이후, 관찰을 통해 영아의 개별적인 요구가 확인되면 개별 지원 계획을 수립합니다. 이 과정에서는 언어 자극이 필요한 영아에게 언어놀이를 추가로 제공하거나 감각 발달을 돕는 활동을 계획하는 등 맞춤형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개별 지원은 부모와의 긴밀한 소통을 바탕으로 영아의 필요를 더 정확히 이해하고 반영하는 방향으로 진행됩니다.

마지막으로, 영아에게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거나 발달 지연이 명확히 확인되는 경우, 부모

와 협력하여 장애 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고 특수교육대상자로 등록하는 절차를 진행합니다. 이후에는 특수교육지원센터와 연계하여 전문적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 범위를 확장합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지원 범위는 통합의 원칙에 따라 영아가 또래와 함께 어울릴 수 있는 환경을 유지하면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와 동시에 영아의 독특한 요구를 반영한 개별화된 지원을 제공해야 하며, 부모와 교사, 관련 전문가 간의 협력을 통해 종합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발달이 느리거나 발달상의 문제를 발견하기 위한 검사 도구

Q

“우리 반 **이가 또래와 달라 보이는데, 연령에 따른 인지와 발달 수준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방법이 있을까요?”



A

영아의 발달 상태를 체계적으로 평가하는 발달 검사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통해 영아의 전반적 발달 및 영역별 발달 상황을 알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K-SIED, K-DST, K-CDI와 같은 발달선별검사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K-SIED(Korean Screening Index for Early Development)는 육아정책연구소에서 개발한 검사로, 교사가 일과 동안 영아의 행동을 관찰한 자료를 바탕으로 평가합니다. 이 검사는 12개월부터 5세까지의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며, 인지, 언어(수용 및 표현), 운동(대근육과 소근육), 사회정서, 자조 영역에 대해 평가합니다. 평가 결과는 각 발달 영역에서 영아가 또래 월령 수준과 어떻게 비교되는지 보여주어 교육 현장에서 영아의 발달 상태를 이해하는 데 유용합니다. K-DST(Korean Developmental Screening Test for Infants & Children)는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에서 시행하는 영유아 건강검진 사업의 주요 검사 항목 중 하나로, 4개월부터 71개월까지의 영유아를 대상으로 합니다. 대근육과 소근육 운동, 인지, 언어, 사회성, 자조 능력(18개월 이후부터)을 평가하며, 특정 신경발달장애(뇌병변, 발달성 언어장애, 자폐 범주성 장애)의 징후를 선별할 수 있는 추가 문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검사에서는 부모가 작성한 설문문을 기반으로 영아의 발달 상태를 평가합니다. 또한 국민건강보험 사이트에서 영유아 검진일자 조회 및 문진표 서식을 받아 볼 수 있습니다. K-CDI(Korean Child Development Inventory)는 특히 언어 발달과 사회성 발달을 집중

적으로 다릅니다. 비교적 간단하게 시행할 수 있어 발달 지연이 의심되는 영아를 선별하는 데 유용합니다. 주요 평가 영역으로는 언어 발달, 운동 발달, 사회성, 적응 행동 등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발달검사는 지역 육아종합지원센터를 통해 이용할 수 있으며, 서울아이발달지원센터와 우리아이발달지원단의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이들 기관은 개별 영아를 위한 발달검사와 기관 단위의 발달검사 및 상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또한 발달검사 결과를 활용할 때는 검사 결과만으로 영아의 발달 상태를 단정 짓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검사 결과는 영아의 행동 관찰 자료와 상호보완적으로 활용해야 하며, 일회성 평가보다는 지속적인 관찰과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합니다.

부모와의 상담

Q

“부모와 상담할 때, 영아의 도전행동에 대해 정확히 전달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설득력 있게 말하려면,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A

부모와 상담하며 영아의 도전행동을 정확히 전달하는 것은 중요하면서도 민감한 과정입니다. 이를 설득력 있게 전달하려면 객관적인 자료와 적절한 대화 방법이 필요합니다. 먼저, 영아의 행동을 객관적으로 기록한 관찰 자료를 준비합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바탕으로 행동을 설명하면 설득력이 높아집니다. 예를 들어, “도전행동” 대신 “어제 자유놀이 시간에 블록을 쌓는 동안 친구가 접근했을 때 00(이)가 소리를 지르고 블록을 던지는 행동이 있었습니다” 처럼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부모가 이해하기 쉽습니다.

상담은 영아의 긍정적인 면이나 강점을 먼저 언급하며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긍정적인 부분을 강조한 뒤 주의가 필요한 행동을 부드럽게 언급하면 부모가 영아에 대한 우려를 수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행동이 나타난 맥락과 빈도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더욱 신뢰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최근 2주 동안 친구들과 놀이할 때 감정을 조절하기 어려운 모습을 세 번 정도 관찰했습니다”라고 말하면, 행동의 일관성과 빈도를 명확히 전달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부모는 교사가 일회성 행동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관찰한 내용을 바탕으로 상담하고 있음을 알고 신뢰하게 됩니다.

상담 전에 해당 부모와 충분히 신뢰 관계를 쌓았는지 확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영아에게

도전행동이 나타나기 시작할 때부터 부모와 여러 번 긍정적인 내용으로 상호작용을 나누며 신뢰를 구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신뢰가 쌓인 상태에서 상담을 시작하면 부모가 더 열린 마음으로 이야기를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도전행동을 지적하는 데 그치는 게 아니라,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하며 긍정적인 기대감을 심어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이런 행동은 발달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일이므로, 기관에서 감정 조절 활동을 추가하고, 가정에서도 비슷한 놀이를 통해 함께 도와주시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라고 제안하면, 부모는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담 중에는 부모의 의견을 경청하고, 그들의 이야기를 충분히 듣는 태도를 유지해야 합니다. “집에서도 비슷한 행동을 보이거나 걱정하셨던 점이 있으신가요?”와 같은 질문을 통해 부모가 상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하면, 교사와 협력 관계에 있다는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만약 도전행동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거나 또래 발달 수준과 현저하게 차이가 나는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제안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이를 더 잘 이해하기 위해 발달 선별검사를 진행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이를 통해 아이에게 맞는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라고 부드럽게 제안하면 부모가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모어 사용에 대한 고민

Q

“어려울 때 모어로 말하는 영아,
어떻게 반응하고 지원해야 할까요?”



A

어려운 상황에서 영아가 모어로 말하는 것은 자신이 가장 편안하게 느끼는 언어를 통해 감정과 필요를 표현하려는 자연스러운 행동입니다. 교사는 이러한 상황에서 다음과 같이 효과적으로 영아에게 반응하고 지원할 수 있습니다.

먼저, 영아가 모어로 표현하는 감정에 공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영아가 자신의 감정이나 어려움을 표현하려고 노력하는 것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태도에서 시작됩니다. 교사는 영아의 표정, 몸짓, 말의 톤을 세심히 관찰하며 상황을 파악하고, 따뜻하고 지지적인 태도로 반응합니다. 또한, 영아의 모어 사용을 존중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영아가 모어로 말했을 때 바로 한국어로 수정하기보다는, 자신의 언어로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도록

격려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영아는 모어와 한국어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신뢰를 얻게 됩니다.

교사는 영아가 모어로 표현한 내용을 이해한 후, 이를 한국어로 확장하여 자연스럽게 언어 학습을 도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영아가 “배고파”라는 말을 모어로 했다면, 교사는 “아, 배고프구나! 밥 먹으러 가자.”라고 답하며 한국어 표현을 반복적으로 들려줍니다. 이러한 방식은 영아가 자연스럽게 한국어를 접하고 익힐 수 있도록 돕습니다.

부모와의 협력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교사는 영아가 기관에서 경험하는 언어 사용과 관련된 내용을 부모와 공유하며, 가정에서도 모어와 한국어를 균형 있게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모색합니다. 이는 영아가 일관성 있는 언어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데 기여합니다. 마지막으로, 긍정적인 환경을 조성하여 영아가 모어로 말하는 것을 부끄럽지 않게 느끼도록 해야 합니다. 기관에서는 다양한 문화와 언어를 존중하는 분위기를 만들고, 영아가 자신의 언어적 배경에 대해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러한 환경은 영아가 자신의 언어를 자연스럽게 사용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주배경 영아 부모와의 상담

Q

“이주배경 영아가 기관에 왔을 때 어머니와의 소통의 어려움을 느꼈습니다. 영아의 발달에 대해 설명했지만 전달과정에서 한계가 있었고, 이주배경 부모 역시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 못해서 힘들어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기관의 일과시간에 맞추기 어려워하는 점도 있었습니다. 이주배경 영아 부모를 위한 기관 생활안내교육이나 문화에 대한 이해교육이 지원되면 좋겠습니다.”



A

언어 소통의 어려움이 있을 때 기관에서 통역사나 번역 서비스를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주배경 가정을 위한 서비스는 가족센터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센터에서 통역 서비스, 문화 적응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으니, 적극적으로 활용합니다. 만약 번역 지원을 받기 어려운 경우, ChatGPT와 같은 번역 도구를 활용하는 것도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가정통신문이나 영유아 발달 정보 등 주요 자료를 부모의 모어로 번역하여 제공하면 전달 효과가

높아지고 부모가 보낸 내용을 이해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지역가족센터에서 이주배경 부모를 대상으로 부모교육과 부모 코칭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조 모임 형식으로 진행되는 프로그램은 부모들에게 교육적 지원뿐만 아니라 정서적·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부모들이 자녀 양육과 관련된 어려움을 해결하고,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며 지지망을 형성하는 데 유익합니다.

언어발달이 느린 영아 지원

Q

“발음이 부정확한 영아를 어떻게 지원할 수 있나요?”



A

우선, 발음을 정확히 하지 않더라도 이를 지적하거나 수정하려 하기보다는 긍정적으로 반응하며 격려합니다. 예를 들어, 아이가 “사과” 대신 “아과”라고 말하면 “그래, 사과 먹고 싶구나!” 라고 부드럽게 바른 발음을 들려줍니다. 영아가 자신감을 잃지 않고 계속 시도하도록 격려해줍니다.



언어발달이 느린 영아

교사가 영아의 행동을 말로 묘사해주는 행동반영을 통해 영아의 발음을 자연스럽게 지원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영아가 자동차 놀잇감을 가지고 놀 때, 교사는 “그래, 자동차가 달리고 있구나! 붕붕, 자동차 소리가 정말 재미있네!”라고 반응하며 영아의 행동을 확장해서 올바른 표현과 발음을 자연스럽게 들려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영아는 자신의 표현이 인정받는다는 느낌을 받으며, 언어적 자신감과 동기를 높일 수 있습니다.



발음이 부정확한 영아

또한 놀이나 활동을 통해 자연스러운 발음 연습기회를 제공하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예를 들어, 발음을 재미있게 연습할 수 있는 동요, 리듬놀이를 하거나, 반복적인 문장이 포함된 그림책을 읽어 줍니다. 또한 말소리 연습을 위해 비언어적 놀이를 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영아의 입 근육과 혀 사용 능력을 높이기 위해 입으로 바람 불기, 혀를 좌우로 움직이기, 입술 부풀리기 등의 놀이나 동물 소리, 자동차 소리 등 영아가 쉽게 따라 할 수 있는 의성어·의태어 놀이를 통해 자연스럽게 발음 연습을 유도합니다. 만약, 발음 문제로 인해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크거나, 시간이 지나도 개선되지 않는 경우에는 부모와 협력하여 언어치료사 등과 연계한 전문적인 평가와 지원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돕습니다.

발달이 느린 아이의 배변 훈련

Q

“발달이 느린 아이 배변훈련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A

배변훈련의 적당한 시기는 ‘개별 영유아가 준비가 되었을 때’이며, 각 영유아의 신체적, 심리적, 언어적 성숙도에 따라 그 시기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발달이 느린 영아의 경우 배변훈련을 시작할 적절한 시기를 세심히 관찰하고, 판단해야 합니다. 영아가 신체적, 정서적으로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배변훈련을 강요하면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발달이 느린 영아는 훈련에 더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기관과 가정 모두 훈련 속도를 조절하며 영아의 발달 속도에 맞춰 유연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시작 시기에 ‘괄약근이 성숙되었는지(괄약근 조절, 보통 18개월~36개월에 발달), 배변 신호를 인식하고 쉬 또는 응가 후에 몸으로 표현할 수 있는지(배변 신호를 인식하고 표현할 수 있는지), 행동을 모방하고 이해하며, 간단한 지시를 따를 수 있는지를 고려해야 합니다. 그리고 배변훈련은 가정과 기관이 협력하여 일관되게 진행할 때 가장 효과적입니다. 기관에서만 훈련을 진행하면 아이가 혼란을 느끼거나 훈련 효과가 더디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모와 정기적으로 소통하며 아이의 배변 습관과 훈련 진행 상황을 공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정에서도 기관에서 배운 습관을 지속할 수 있도록 일관된 환경을 제공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정해진 시간에 변기에 앉는 습관을 함께 연습하며 훈련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배변훈련을 재미있고 긍정적인 경험으로 만들어주는 방법도 중요합니다. 영아용 변기 사용, 좋아하는 동화책 읽기, 즐거운 음악 듣기나 놀잇감을 화장실에 두어 흥미를 유도할 수 있습니다. 또한, 화장실에 물건을 숨겨 찾는 탐색놀이와 같은 활동을 통해 화장실이라는 장소와 친해지도록 돕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배변훈련은 영아의 성격발달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따라서 영아를 격려하고 성공을 칭찬하며 긍정적인 경험을 만들어 주는 것이 중요하며, 강요하거나 통제하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또한 배변훈련 시기의 과업은 신체조절능력과 자율성 발달이므로 일상에서 영아가 스스로 해내는 것들을 지지해주고 자조 기술을 습득하게 도와주는 것은 배변훈련과 더불어 영아의 긍정적 자기개념 형성에 도움이 됩니다.

자폐 범주성 장애의 특성을 보이는 영아에 대한 지원

Q

“발달지체로 진단받은 영아인데 자폐 범주성 장애가 의심됩니다. 어떻게 지원해야 할까요?”



A

자폐 범주성 장애의 특성을 보이는 영아에게도 모든 영아를 위한 반응적 지원은 도움이 됩니다. 특히, 자폐 범주성 장애와 관련된 특성을 보이는 영아에게 도움이 되는 반응적 지원의 방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폐 범주성 장애 관련 특성을 보이는 영아를 위한 반응적 지원 방향]

구분	하면 안 되는 것	해야 하는 것
놀이	영아가 관심을 보이지 않는 놀이나 활동을 억지로 하게 하기	흥미와 관심을 보이는 것을 활용하여 놀이 확장하기
	제한된 놀이를 하는 영아를 지원하기 위해 영아의 놀이에 간섭하거나 방해하기	영아의 관심을 끌 수 있도록 영아가 가지고 노는 놀잇감을 이용하여 영아 옆에서 재미 있게 평행놀이(병행놀이)하기 영아가 즐기는 감각 자극이나 놀잇감이 있다면 놀이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의사소통	입 모양을 보여주며 말을 따라하도록 하기	영아가 하고 싶어 할 것 같은 말을 그 말이 필요한 상황에서 해주기
	말로 안내하거나 소통하기	그림이나 사진 등 시각적 자료를 함께 활용하여 안내하고 소통하기
상호작용	영아에게 '주세요' 처럼 요구하기 위한 의사소통 표현만 가르치기	영아가 설명하기, 자랑하기, 질문하기 등 다양한 의도의 표현을 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교사가 먼저 시범 보이기
	성인이 질문하거나 지시하면 영아가 반응하는 방식으로 상호작용하기(예: “이건 뭐야?”라고 묻기, “이렇게 해.”라고 지시하기)	영아가 교사를 훌륭한 상호작용 파트너로 인식하도록 영아의 의도를 읽고 반응적으로 대하기
감정조절	영아가 화를 내거나 울 때 이유 없이 운다고 생각하기	겉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영아를 불안하게 하거나 불편하게 한 요소 찾아보기
	영아가 화를 내거나 도전행동을 보일 때 훈육하기	화를 내거나 도전행동을 보일 때 감정을 읽어주고 공감한 후 적절한 표현 방법 알려주기
	영아가 울거나 화를 낼 때 반응하지 않거나 야단치기	위로를 구하고 싶은 따뜻한 사람이 되어주기

3

지원·정책 서비스

대상	영역	사업(명)	내용	신청 및 담당 기관
모든 영아	활동지원	올리볼리 문화다양성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다양성과 관련된 전 세계 그림동화를 영상으로 제작한 온라인 콘텐츠 제공 플래시 애니메이션으로 그림 동화 제공 (무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올리볼리 사이트 (http://ollybolly.org)
		서울아이 건강 첫걸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문간호사 가정방문 건강관리 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편방문: 출산한 모든 임산부와 신생아 대상으로 4주 이내에 전문간호사가 가정방문 - 지속방문: 건강위험요인이 있으면 2세까지 최소 25회 동안 건강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울시 임신정보 출산 센터 관할 보건소
	발달지원	우리아이 발달지원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온라인 발달체크리스트(‘클릭, 간편발달체크’) 제공 발달 촉진 tip, 우리반 발달체크, 개별 심층평가와 온라인 발달 상담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산광역시장애인 종합복지관
		발달 검사 및 상담 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온라인 발달검사 및 찾아가는 기관 발달검사 서비스 심리전문가 방문평가 및 온라인 상담 발달예방프로그램 운영 및 발달지원 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울아이 발달지원 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영유아 발달지원 서비스 양육지원 및 부모상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육아종합지원센터

대상	영역	사업(명)	내용	신청 및 담당 기관
발달 지연	발달·심리 지원	영유아 발달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영유아 건강검진 발달평가 결과 '추적검사 요망' 혹은 '심화평가권고'인 영아, 발달 지연 영유아(보육시설장 추천, 발달검사 결과, 의사의 소견서), 보건소장이 영유아 발달지원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추천한 영유아 대상 발달지원 및 조기 중재서비스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육아종합지원센터 관할 행정복지센터
		아동청소년 심리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0~18세의 문제행동 위험군 아동 중 서비스 지원이 우선적으로 필요한 경우 심리상담, 놀이·언어·인지·미술·음악 프로그램 제공 부모상담 서비스 및 부모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관할 행정복지센터 지역사회복지관, 장애종합복지관 및 기타 사설 상담기관
	치료지원	발달재활 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0~5세 영유아 중 의사의 진단서와 검사결과를 제출하여 발달재활 서비스가 필요함이 증명된 경우, 지역사회복지관과 장애인종합복지관 및 기타 사설 치료기관에서 발달재활 서비스 이용 발달재활 서비스와 장애 조기발견 및 발달진단 서비스, 중재를 위한 부모상담 서비스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관할 행정복지센터
	가족지원	아이돌봄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0~12세의 영유아 및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에서 양육공백이 발생한 경우, 아이돌봄미를 가정에 파견하여 돌봄 서비스 제공 (소득에 따라 차등지원) 등하원 및 준비물 보조, 부모 귀가까지 임시보육, 놀이활동, 준비된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 등의 돌봄 서비스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관할 행정복지센터

대상	영역	사업(명)	내용	신청 및 담당 기관
장애 영아	현금지원	장애아동 수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0~18세 장애 영유아, 아동, 청소년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가정에 장애아 양육에 필요한 추가 비용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관할 행정복지센터
		장애아동 양육수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86개월 미만 장애등록 영유아 중 가정에서 양육하는 경우, 0~36개월 미만 월 20만원, 36~86개월 미만 월 10만원 지원 	
	양육 및 활동지원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18세 미만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등록 대상 돌봄 서비스 제공(기준중위 소득 120% 이하 가정 무료, 소득 초과 가정은 이용료의 40% 본인 부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관할 행정복지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18세 미만의 모든 장애아 가족 대상(소득 수준과 무관), 교육, 문화, 상담 및 치료, 자조모임, 정보제공 등의 휴식 지원 프로그램 제공 	
		장애인 활동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6세 미만의 장애등록한 경우, 장애인의 자립생활지원 및 가족의 부담 완화를 위해 목욕 및 세면도움, 실내이동 도움, 청소 및 취사, 등하교 및 외출 동행지원, 방문 목욕, 방문간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관할 행정복지센터

대상	영역	사업(명)	내용	신청 및 담당 기관	
이주 배경 가정	활동지원	여성결혼 이민자 지도자 양성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여성 결혼이민자를 지도자로 양성하여 정착도우미로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행정안전부 	
	자조모임	결혼이민자 네트워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착에 성공한 결혼이민자를 명예 출입국 관리공무원으로 위촉하여 결혼이민자 정착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법무부 	
	한국사회 적응지원	상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족상담, 개인상담(지역 유관기관 및 전문 기관 연계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족센터
		한국어 방문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결혼이주여성 대상 한국어교육 	
		결혼이주자 통번역 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의사소통이 어려운 결혼이민자에게 통번역 서비스 제공 	
		이중언어 가족환경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중언어 부모코칭 이중언어 활용 프로그램 	
		자조모임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다문화가족 정책모니터단 운영 결혼이민자 자조모임 구성 	
결혼이주여성 직업교육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 등록된 구직희망 여성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교육 			

2024 개정 표준보육과정(0~2세)

모든 영아를 위한 지원자료



연구책임자 강은진 육아정책연구소 선임연구위원

공동연구자 김지원 육아정책연구소 부연구위원
김지형 충북대학교 교수
김형미 한국성서대학교 교수
배윤진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
이수정 위덕대학교 교수
장혜진 대구대학교 교수
최윤경 육아정책연구소 전문연구위원

연구협력진 김정연 구로삼성어린이집 원장
김현미 대구사랑별어린이집 원장
오경숙 면일어린이집 원장
지주나 한국성서대학교부설어린이집 원장

(이상, 가나다순)

총괄기획 김은영 선임연구위원, 강은진 선임연구위원, 배윤진 연구위원, 김지현 연구위원, 김지원 부연구위원,
김혜진 전문연구위원, 최윤경 전문연구위원, 김희수 전문연구위원, 이정은 연구위원 (이상, 육아정책연구소)

연구협력관 문복진 교육연구관, 이해나 교육연구사, 이해리 주무관 (이상, 교육부)

발행일 2025년 2월 28일
발행처 교육부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www.moe.go.kr
디자인 (주)유월애디자인(전화 02-859-2278)
인쇄 (사)한국장애인문화콘텐츠협회(전화 02-2279-6760)

이 책을 무단전재 또는 복제 행위 시 저작권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발간등록번호 11-1342000-100055-01

ISBN 979-11-6865-112-8 94370



모든영아를 위한
지원자료

